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29호 【루계 제26203호】 주체107(2018)년 11월 25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우리 식의 창조본때, 견인불발의 투지로 경제건설대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사상전의 포성으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

량강도당위원회에서

량강도당위원회에서 사상전의 포성으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기 위한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사상사업은 마땅히 현시기 당앞에 나선 기본임무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사상전선이 들끓는것만큼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하며 천만군민이 일떠선것만큼 혁명이 전진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당의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에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수령의 위대성과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삼지연군을 본보기로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학습열풍을 일으키는 한편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을 우리 당의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각급 당조직들이 청년교양에 특별한 힘을 넣도록 하고있다.

김정숙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령성령도로관리를 맡은 청년들속에 내려가 그들의 가슴마다에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심어주고 도로관리에서 본보기를 창조할수 있게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혜산의학대학 당조직에서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장으로 진출한 전세대 청년들의 모범을 본받도록 학생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짜고든 결과 수십명의 졸업생들이 삼지연군에로 집단란원하는 소행이 발휘되였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청년동맹사업이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옳바로 진행되도록 정책적지도, 정치적지도를 심화시키고있다. 그리하여 많은 청년들이 216사단 백두산영웅청년려단과 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에 앞을 다투어 란원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계급교양관을 비롯한 계급교양거점들을 잘 꾸리는 한편 각급 당조직들이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혜산시당위원회에서는 계급교양거점들을 통한 참관을 단위별로 정상적으로 조직하면서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은 백년이 가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변할수 없다는것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새겨주고있다.

풍서군당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그들이 자기 지역의 생동한 자료와 실물을 가지고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을 실효성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대홍단군당위원회에서는 계급교양자료들을 새로 보충하고 군계급교양관운영회수를 늘이면서 계급교양의 도수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감자농사와 광업, 림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공세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고있다.

일군들은 강력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삼지연군을 비롯한 감자산지들에 집중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고있다.

이뿐아니라 삼지연군꾸리기건설장을 비롯한 전투장들마다에서 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의 선동경연과 집중강연선전대,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들의 활동을 강화하여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지도하신 삼지연군 중흥농장에 파견하여 당면한 영농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품을 넣고있다.

그리하여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농기계현대화의 본보기단위로 꾸리며 감자농사를 보다 높은 과학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많은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통속적이고 흙냄새가 나는 화선식전선선동사업이 참신하게 벌어져 삼지연군에서는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감자농사를 잘 지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으며 대홍단군에서는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 기세로 다음해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혜산강철분공장에서는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철야전군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속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 3대혁명붉은기단위들과 년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대렬은 날을 따라 늘어가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굴지의 대동력기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발전설비대보수와 전력생산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미 방대한 량에 달하는 여러대의 보이라 및 타빈발전기대보수과제를 질적으로 완수한 이들은 지금 또 한개 호기의 대보수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수십만kW능력의 발전설비를 증설하고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는 속에 4직장과 2직장 등에서 매일 많은 량의 전력을 생산해내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생산자대중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보이라 및 타빈발전기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년간 대보수과제를 앞당겨 끝내여 겨울철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데 힘을 넣고있다.

운영직장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4직장과 2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발전설비들의 관리운영을 철저히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면서 매일 높은 전력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청년직장과 3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도 엄간점검과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교대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맡겨진 전력생산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특히 새로 증설된 발전설비들의 관리운영을 맡은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합리적인 운전조작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매일 많은 량의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하차직장과 주강직장, 자력갱생직장과 운탄직장들에서도 따라앉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발전설비대보수전투장에서 집단적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이미 여러대의 보이라 및 타빈발전기대보수를 질적으로 끝낸 열설비보수직장과 타빈보수직장, 미루보수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또 한개 호기의 대보수과제를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은 해당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전력생산실천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탐구의 구슬땀을 바쳐나가고있다.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3구역 2호중간방조제 천수백m 건설

룡매도간석지건설장에서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파감히 박차며 룡매도간석지 4구역 기본방조제와 3구역 2호중간방조제건설을 동시에 내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종합기업소에서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여 3구역 2호중간방조제 천수백m를 건설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해안방조제가 축축 뻗어나가고있는 속에 날을 따라 조국의 대지가 넓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농업성 간석지건설관리국의 지도방조밑에 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으로 모든 력량과 수단을 4구역 기본방조제와 3구역 2호중간방조제건설에 총집중, 총동원하였다.

종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 지휘부를 전개하고 전투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즉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였다. 특히 주타격방향을 바로 정하고 시공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공사전반을 내밀어 룡매도전역에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일군들은 두곳에서 방조제건설이 동시에 벌어지는 조건에 맞게 채석장과 토취장에 력량을 집중하고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어 전반적인 작업속도를 부쩍 높이였다. 또한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가능성과 예비를 총동원하는 한편 새로운 공법과 창의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방조제건설에서 위훈이 창조되게 하였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과학연구기관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제바닥성토에 의한 지수공법을 받아들여 전단면전진법으로 종전보다 방조제건설속도를 2배로 높이였다.

채석장을 타고앉은 청단간석지건설분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채석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합리적인 굴진방법과 발파방법을 받아들이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이들은 암질조건에 따르는 앞선 착암방법과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련속천공, 련속발파로 굴진속도를 최대한 높이였다. 그리하여 하루에도 6~8m의 굴진실적을 내였다. 특히 여러차례의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많은 돌과 바력을 2호중간방조제건설장에 보내주었다.

간석지건설에서 혁신을 창조할 열의밑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날바다를 페지르며 3구역 2호중간방조제가 힘있게 뻗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전명일

금속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에 계속 큰 힘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철광산들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전극, 합금철, 내화물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금속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기한전에 완수할 일념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재령광산과 보산제철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보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주체화, 현대화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나가고있다.

봉천광구개발공사 활발

재령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매장량이 풍부한 봉천광구개발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2만 5천여㎥의 성토와 1만 2천여㎥의 절토작업 등이 진행되여 봉천광구철길이설공사가 결속되였다. 수㎞나 되는 인입도로정리와 수백m구간의 배수로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난 광구개발전투장에서는 지금 철광석생산을 위한 박토처리와 보조건물들에 대한 건축공사가 립체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광산참모부에서는 생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봉천광구개발공사에 력량을 집중하는 한편 철길이설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끝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특히 공사에 동원된 현판단위와의 련계를 강화하면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필요한 설비, 자재, 로력보장을 따라세우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다.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광구개발공사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이들은 자체로 양수동력설비를 보장하고 10만여㎥나 되는 채광장의 물을 퍼내여 개발전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기세드높이 이곳 로동자들은 수천㎥의 박토처리와 채광장주변배수로공사, 수㎞구간의 인입도로정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혁신창조의 불길은 봉천광구철길이설공사장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수만㎥의 성토 및 절토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낌으로써 철길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철도성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수천정의 콩크리트침목과 많은 철길고착품들을 확보하고 중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여 짧은 기간에 천수백m구간에 대한 철길이설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주시와 재령군을 비롯한 황해남도안의 여러 지역에서 달려나온 수천명의 근로자들도 철길자갈깔기작업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본사기자 전혁철

회전로현대화공사 적극 추진

보산제철소에서 회전로현대화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회전로들에 산소취입공정을 확립한데 이어 무연탄소립화공정을 꾸리기 위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일군들은 기술자, 로동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회전로현대화공사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곳 기술집단은 회전로현대화실천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두뇌전, 탐구전을 맹렬히 벌리면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그들은 산소취입공정과 무연탄소립화

수백명의 녀맹원들 공장, 기업소들에 탄원

지난 20일 군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탄원해가는 녀맹원들을 환송하는 축하모임이 있었다.

탄원자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지척에 바라보며 사는 삼지연군인민들을 늘 생각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랑과 은정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생산돌격전의 앞장에서 위훈을 떨칠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었다.

애국충정의 마음안고 전투장으로 떠나는 탄원자들을 군일군들과 인민들은 뜨겁게 축하해주었다.

특파기자

현실에서 의의있는 연구성과를 더 많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다그치고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는데서 과학기술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도려객운수국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우리 식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훌륭히 제작완성하는데서 과학기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수도려객운수국 운수설계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높이에서 설계하기 위하여 비상한 각오를 안고 달라붙었다. 설계실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린 이들은 방대한 량의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면서도 단한달동안에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궤도전차생산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수도려객운수국 평양운수기술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비동기전동기의 조종장치와 조종프로그람, 종합조종제를 높은 수준에서 개발하였다. 궤도전차의 핵심기술을 확고히 틀어쥐려는 배짱을 안고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린 결과 이들은 짧은 기간에 조종장치와 조종프로그람을 훌륭히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의 내부수지벽판을 우리의 자재로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을 벌렸다. 이들은 내부수지벽판의 기술적지표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실험실과 현장에서 수십차례의 분석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돌격대원들은 어느 한 단위와의 련계밑에 성능이 좋은 수지벽판을 생산할수 있는 공정을 확립하였으며 수지벽판설치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평양철도종합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어느 한 기계공장과의 창조적협조밑에 무궤도전차의 조향롤프를 제작하였다.

전자공업성의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도 불켰개전동기를 자체로 개발하였으며 전조등을 비롯한 각종 등들을 새롭게 연구제작함으로써 우리 식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생산에 기여하였다.

과학기술로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간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의 완강한 투쟁이 있었기에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는 훌륭히 제작되게 되였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게 되였다.

본사기자 박현

페가스산소분석기 개발도입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분원 나노재료연구소에서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분원 나노재료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경제적의의가 대단히 큰 페가스산소분석기를 우리 식으로 개발도입하였다.

이 페가스산소분석기는 보이라나 공업로에서 나오는 먼지가 많이 섞인 고온페가스속의 산소농도를 실시간으로 정량분석하는 장치이다. 페가스산소분석기를 리용하여 보이라나 공업로의 최적운영조건을 보장할수 있는 새로운 조종방법이 확립됨으로써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의 전략적목표는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하는것입니다.》

전력공업과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등 여러 부문에서 리용되는 전력생산용 및 증기생산용보이라들과 열처리로, 소성로, 열분해로, 회전로들에서는 운영과정에 먼지가 많이 섞이고 온도가 700℃이상 되는 페가스가 나온다.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페가스산소분석기는 나노사기에 기초한 산소분석장치로서 이러한 고온페가스속에 남아있는 산소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련속 정량분석함으로써 보이라나 공업로에서 공기와 연료의 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많은 연료를 절약하고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유해가스방출량을 훨씬 줄일수 있게 한다.

또한 페가스속의 산소농도변화에 따라 연료공급량을 즉시에 조절하는 방법으로 연료의 발열량변화에 관계없이 로의 최적온도를 항상 유지할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되는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한다.

리성범동무를 비롯한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페가스산소분석기를 개발도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심화시키고 현존수감부들의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료해분석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세멘트회전로 등에서 나오는 먼지가 많이 섞인 고온페가스속에서 실시간으로 련속측정이 가능한 수감부의 합리적인 구조를 확정하였으며 특히 나노사기에 기초하여 성능높은 수감소자를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하였다. 또한 고온페가스속의 산소농도를 높은 정확도로 측정하여 석탄과 같은 연료의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로의 온도를 최적조건에 맞게 조종할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확립하였으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분석기설치 및 사용조건을 해명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인민경제적의의가 매우 큰 성능높은 페가스산소분석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페가스산소분석기는 값비싼 수입제품들에 비하여 측정범위와 분해능, 응답속도와 같은 기술적특성들이 같거나 더 좋을뿐아니라 원가도 훨씬 낮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와 천내리세멘트공장을 비롯한 도입단위들의 경험에 의하면 종전에 비해 세멘트크링카의 질을 훨씬 높이면서도 많은 석탄을 절약하고 유해가스방출량도 현저히 줄일수 있게 되였다고 한다. 특히 산소수감부를 일단 설치한 다음에는 수개월에 한번씩 보정만 해주면 되므로 분석기관리에 드는 로력이 필요없다고 한다.

화력발전소보이라들에 페가스산소분석기를 도입하는 경우 열효률이 높아져 현존발전능력을 보장하면서도 많은 석탄을 절약할수 있다고 한다.

지금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분원 나노재료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내각과 경제부문의 여러 단위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속에 심리가 큰 페가스산소분석기를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증산의 동음 세차게 울려가고있다.
—대홍청년영웅광산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백승의 력사 빛내여가리

남패자회의 80돐을 맞으며

위대한 정신과 더불어 불패의 강국이 전진하고있다.

백두의 공격정신!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온갖 시련을 맞받아나가며 새로운 기적창조에로 용솟음치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기상은 백두의 공격정신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정신적재부이며 필승의 보검임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어느덧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다. 저 멀리 몽강현의 남패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어올릴데 대한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열정에 넘친 음성이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첩첩인 시련과 난관을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맞받아나가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준 남패자회의.

그 력사의 나날을 더듬는 우리 인민의 심장은 무엇으로 뜨겁게 불타고있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 일생의 총적지향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할수 있다. 나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로 한생을 살아왔다. 전진도상에 난관이 가로막아나설 때마다 나는 그 앞에서 주저앉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을 에돌거나 피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신심을 잃지 않았고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였다.》

오늘도 봄날의 해빛과도 같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고무해주시며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생애의 전기간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이 인민의 가슴을 후덥게 적셔준다.

주체27(1938)년 가을 우리 혁명앞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일제는 관동군 주력사단들의 대부분과 위만군, 지방무장경찰대까지 총동원하여 압록강, 두만강연안의 군사전략상중요지대들에 배치하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한편 군사적공세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자 《치본공작》, 《사상공작》, 《귀순공작》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토벌》을 대대적으로 벌리였으며 혁명조직들을 파괴하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검거, 투옥, 학살만행에 미쳐날뛰였다. 이러한 때 좌경모험주의가 빚어낸 열하원정의 후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백두산서남부일대에 증강된 적의 대병력과 저의 단독으로 맞서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그 시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쑤들의 발악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주체27(1938)년 11월 25일부터 10여일간에 걸쳐 진행된 남패자회의에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을 줄기찬 앙양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대책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자》의 구절구절이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린다.

우리들이 이 영예로운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조선혁명은 전진을 멈추게 될것이며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조선혁명을 책임진 혁명가들인것만큼 난관앞에 주저앉을것이 아니라 더욱 억세게 싸워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남패자회의에서는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해서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시급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로 진출하며 광활한 지역에서 군사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며 혁명조직들을 복구정비하고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과업들이 제시되였다.

이것은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확고한 자주적립장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어나갈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였다.

인류의 전쟁사는 수백배의 강적이 겹겹이 포위진을 치고있는 역경속에서 이런 과학적이고 대담한 공격전략을 창조해낸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며 우리 혁명앞에 닥쳐온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였다. 앉아서 걱정만 해가지고서는 문제를 풀수 없었다. 물론 밀영같은데 들어가서 배겨있으면 한해 겨울을 무사히 보낼수도 있고 력량은 보존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현상유지나 해가지고서야 어떻게 혁명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고난의 행군을 해서 조국에 나가기로 했다고 교시하시였다.

남패자회의를 계기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신념과 의지는 천백배로 굳세여졌다. 남패자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고난의 행군은 참으로 가혹하고 준엄한 시련을 헤쳐야 하는 혈전의 길이였다. 그것은 부대의 이동을 위한 단순한 행군이 아니라 웅근 하나의 전역과 맞먹는 규모가 큰 군사작전이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축도였다고 말할수 있다.

《진드기전술》에 의한 적들의 집요하고 질긴 추격, 비행기까지 동원한 이중삼중의 포위망, 조선인민혁명군의 내부와해를 노리고 강행된 대대적인 《귀순공작》, 깊고깊은 눈무지들과 모든것을 날려보낼듯 한 눈보라, 영하 40°C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참기 어려운 식량난…

조선혁명이 주저앉느냐, 과감히 일어나 전진하느냐 하는 가렬처절한 시기에 고난의 행군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심장속에서 끓어번진 열원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담대한 배짱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억천만번 죽더라도 기어이 원쑤를 치고 조국을 찾고야말겠다는 강의한 의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탁월한 령군술과 림기응변하는 유격전술로 굶주린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강도 일제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시였다.

병력의 집중과 분산, 불의의 기습전, 신속한 기동전을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의 명활한 전술에 놈들은 전률하였다.

마침내 일제의 악랄한 발악적공세는 격파되였으며 고난의 행군은 승리적으로 결속되였다.

그 나날을 돌이켜보며 항일의 로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무서운 곤난속에서 적들과 싸우면서 강행군을 계속하였다. 그 힘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자신도 놀라리만큼 무섭고 강력한것이였다. 그러면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신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돌이켜보면 조선혁명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성과 엄혹성으로 하여 걸음걸음 고난과 시련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전인미답의 길이였다. 하지만 굴함없는 백두의 공격정신이 있고 그 빛나는 계승이 있었기에 우리 혁명의 전진이 더디여지거나 멈춰선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세계사회주의체계가 붕괴되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우리 공화국을 먹어보려고 달려들던 지난 세기말 겹쳐드는 시련과 난관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때 우리 인민은 1930년대 고난의 행군의 진두에 서계신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굴의 기상을 보았다.

시련이 물러가기를 기다린것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맞받아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상한 공격정신, 수령님식의 맞받아나가는 혁명전략으로 우리 장군님께서는 선군장정의 길을 더욱 줄기차게 이어가시며 준엄한 난국을 진두에서 타개해나가시였다.

그 나날 그이의 심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헤치신 고난의 행군의 자욱자욱이 어찌 추억깊이 안겨들지 않았으랴.

고난의 행군과 같은 행군을 한 위대한 력사를 가진 인민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군의 력사를 유산으로 가지고있는 인민은 어떤 힘으로써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난의 행군을 추억하시며 하신 이 뜻깊은 교시의 구절구절을 되새길수록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만난을 맞받아 뚫고나가신 우리 장군님의 필승의 기상이 가슴에 세찬 격랑을 일으킨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최강국의 높이에로 치달아올라야 한다는 그이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있어 고난과 시련이 산산이 부서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가 펼쳐지는 경이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시련속에서도 더더욱 철통같이 다져진 우리의 일심단결, 드넓게 펼쳐진 토지정리된 협동벌들,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른 인공지구위성, 온 나라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 이 땅우에 장엄히 펼쳐진 새 세기 산업혁명…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조하시고 빛나게 계승하여오신 백두의 공격정신을 떠나 우리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새겨진 빛나는 승리와 영광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 민족이 맞이한 또 한분의 백두산형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그이를 높이 모시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앞길은 그 얼마나 밝고 창창한것인가.

오늘 우리 인민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시련을 맞받아나아가는 백두의 공격정신, 일단 결심하면 반드시 해내고야마는 과감한 실천력을 지닌 정신력의 강자, 창조의 거인들로 자랑떨치고있다.

이 격동적인 현실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억년암반처럼 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몇해전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유럽의 한 정객은 《조선에는 세계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주체조선의 거대한 힘, 그것은 바로 조선의 영원한 정신이며 필승의 기치인 백두의 공격정신이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삶의 높이를 정하고 온넋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불태우며 전진하는 우리 인민을 정복할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룬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남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키우시던 나날에

깊이 심어주신 혁명승리의 필연성

항일전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로 하여금 고난속에서도 두려움없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위해 억세게 투쟁해나갈수 있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다.

주체24(1935)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원들의 학습토론을 료해하실 때의 일이다.

대원들은 그이께 알고싶던 문제들을 스스럼없이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매번 친절하게 답변을 주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유격대가 초기에 조직될 때에는 불과 몇십명에 불과하였지만 4년도 못되는 사이에 오늘처럼 대오가 몇백배로 자라났다. 인민들의 반일력량도 확대강화되고있다. 그러므로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 백사람이 천사람, 만사람을 불러일으킬 때 2천만 우리 동포가 반일투쟁에 떨쳐나서게 될것이며 조선은 해방될것이다. …

모두의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였다. 대원들은 혁명승리의 필연성을 원리적으로 깨우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당과 혁명의 뿌리, 만년초석

어느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으로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나갈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념과 의지, 배짱에서 우리 수령님을 따를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한 년대들에 보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신념과 의지, 배짱에 대하여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숭엄한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우리 당과 혁명의 뿌리이며 만년초석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같은 충정과 절의에 충만되여 있는 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학습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크나큰 믿음, 고귀한 지침

두해전 8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가 성대히 열리였다.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조선청년운동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다시금 뜨겁게 어려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청년동맹이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의 뜻깊은 말씀을 받아안으며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맹세로 심장을 불태웠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동맹에서는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당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을 뼈속깊이 심어주어 그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지력자강의 투사로 억세게 키우며 청년들이 살며 일하는 그 어디에서나 백두의 넋과 기상이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그날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에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신념의 강자들로 키워나가시려는 높으신 뜻이 담겨져있었다.

오철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 제일배짱가이시였다.》

항일전의 나날 투사들이 헤쳐온 고난의 행군길은 참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간고한 길이였다.

간악한 적들과의 투쟁,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 극심한 식량난과 피로와의 투쟁, 무서운 병마와의 투쟁…

그 류례없는 혈전의 길, 눈보라길에 태여난 하나의 감동깊은 이야기가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행군대오에 울려퍼진 《적기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남패자를 떠나 고난의 행군길에 오르시였을 때의 일이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며칠동안 낟알구경을 못하고 맨 눈을 삼키며 눈보라를 헤쳐나갔다. 지칠대로 지친 대원들이 키를 넘는 눈속에서 길을 내느라고 무진 애를 썼지만 몇발자욱을 못 가서 쓰러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런 대원들을 일으켜세워주시면서 행군을 계속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나어린 한 대원이 맥이 진하여 끝내 의식을 잃고 눈우에 쓰러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대원을 안아일으켜 한품에 꼭 껴안으시였다.

얼마후에야 정신을 차린 그는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힘을 내라고 하시며 그를 더욱 따뜻이 품어주시였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밀림을 통채로 날려보낼듯 더욱 기승을 부렸고 박달나무도 얼어터진다는 강추위에 그의 손발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다.

이러다 눈속에 묻혀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위구심이 그의 머리속에 맴돌았다.

그때였다.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적기가》를 부르시는것이였다.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

맥을 놓고 쓰러졌던 대원들이 하나둘 머리를 들었다. 이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전대오가 불사신마냥 거연히 일어나 눈보라를 맞받아 앞으로 나가며 《적기가》를 불렀다.

노래의 구절구절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그 어떤 엄혹한 시련도 뚫고헤치며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휘날려가려는 대원들의 의지가 그대로 맥박치고있었다.

나어린 그 대원도 노래를 따라 부르려고 했지만 입술이 얼어붙어 좀처럼 소리를 낼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눈으로 그 대원의 입언저리를 비벼주시였다.

그제서야 입이 간신히 열린 그는 노래를 불렀다.

…
원쑤와의 혈전에서
붉은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래를 부르는 그를 꼭 껴안으시며 이 어려운 고비를 견디여내자고,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조국이 영영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가는 길은 험난해도 조국과 잇닿아있는 성스러운 길이라고, 혁명에 다진 맹세를 잊지 말고 조국해방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억세게 걸어나가자고 하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못 잊을 력사의 그날로부터 장구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 부르신 그날의 《적기가》는 오늘도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으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에 필승의 혁명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주고있다.

김성훈

승리를 담보하는 불멸의 기치

우리 인민이 절세위인들의 령도따라 년대와 년대를 이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 이룩한 모든 승리의 밑바탕에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혁명의 계승자들의 대오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있는것은 이 정신으로 더 무장하고 이 정신을 더 높이 들고나가는 길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가 있기때문이다.

설한풍이 휘쓰는 험한 산중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운 항일유격대원들의 정신세계를 그려보며 답사길에 오르는 우리 인민이다.

백두의 공기로 마음을 씻고 백두의 칼바람맛을 실감하며 혁명신념을 벼려가는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미더운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높이 발휘된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가 대를 이어 물려받고 물려주어야 할 가장 고귀한 혁명의 재부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불멸의 기치,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입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조선혁명의 넋이고 생명이다. 이 정신을 떠나 우리 혁명이 개척될수도 없었고 전진할수도 없었으며 승리의 바통을 이어올수도 없었다.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느해의 5월 백두산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수령님께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의 언덕을 맞받아 헤쳐나가시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백두의 혁명정신이라고 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싸워나간다면 남먼저 혁명의 종착점에 가닿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자, 이것이 오늘 내가 백두산에 올라 더욱 굳게 다지게 되는 결의이고 또 동무들에게 하고싶었던 말입니다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날의 맹세를 지켜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불굴의 신념을 안으시고 그 어떤 역경도 맞받아나가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신 우리 장군님,

오늘도 백두의 혁명정신이 전체 인민을 고무추동하고있다.

혁명선렬들이 헤쳤던 백두의 행군길에 누구나 마음을 세워보자.

그러면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기 위해 풍찬로숙하시며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더 깊이 새겨지리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을 굳은 각오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온 항일투사들의 모습도 안겨오리라.

준엄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계승자들이 투사들마냥 붉은기를 높이 들고 혁명가요를 힘차게 부르며 나아가던 력사적인 답사행군의 그 나날도 떠오르리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이 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끊임없이 이어지는 백두의 행군길이며 가슴속깊이 더욱 새겨지는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생눈길을 꿋꿋이 헤쳐가는 개척정신, 승리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싸워나가는 계속혁명정신이 우리 세대의 피줄기에 맥맥히 흐른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혁명의 길을 헤쳐갈수록 가슴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하여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이 위대한 혁명정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한 전체 인민의 대하가 굽이치는 길우에 새겨지게 될 주체조선의 새 력사를 보라.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은 인민이 있는 한 우리 조국은 더 아름답게, 더 찬란하게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혁

혁명의 성산에서 새겨주신 숭고한 뜻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뿌리가 내린 백두산에로 끝없이 마음달리느라면 이 땅우에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쳐온대도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

조용히 불러볼수록 천만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어주시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줄기차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거룩하신 모습이 숭엄히 어려와 격정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직접 맞아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 백두산의 진짜매력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됩니다.》

주체104(2015)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그날 바람이 초당 25m로 강하게 불어치는 백두산정에 남먼저 오르시여 장쾌한 백두산해돋이를 부감하고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답사행군대성원들이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 알아보시였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전투비행사들이 눈도 제대로 뜨기 바쁜 눈보라폭풍속을 헤치고 백두산에 오르고있다고 하시면서 비행사들은 어려워도 그런 행군을 해보아야 투사들이 겪은 고난의 행군이 얼마나 간고한 길이였는가를 알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투비행사들이 행군속도를 높이도록 지휘하여야 하겠다고, 자신께서 지금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 위하여 백두산마루에서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알려주면 그들이 힘과 용기를 내여 백두산에 오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 소식에 접한 전투비행사들의 감격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컸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마루에서 자기들을 기다리고계신다는 기쁨과 환희에 북받쳐 행군속도를 높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손에 손에 붉은기를 휘날리며 백두의 사나운 칼바람을 맞받아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백두산마루에 도착한 전투비행사들을 몸소 마중하시였다.

전투비행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기며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에서 동무들을 만나니 반갑다고,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면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였다.

오늘 우리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의 눈보라가 얼마나 맵짠가 하는것을 맛보았다고, 백두산의 눈보라는 백두의 칼바람이며 백두의 기상이라고, 지금같이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맞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혁명가들은 백두의 칼바람맛을 알아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누구나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이 펄펄 끓게 하고 혁명가들을 더 큰 승리에로 떠밀어주는 혁명의 바람 백두의 칼바람!

우리의 전투비행사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키는 길에서 필승의 기상을 높이 떨쳐갈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칼바람세찬 백두산정에서 그렇듯 감동깊은 화폭을 펼치시며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길,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길이라는데 대하여 그토록 절절히 말씀하신것 아니랴.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백두산의 칼바람이 정말 세차다고, 이렇게 칼바람을 맞으며 찍어야 백두산에서 찍는 기념사진이 더 의의가 있다고 하시면서 겹겹이 에워싸고 둘러앉은 전투비행사들과 어깨를 겯고 력사에 길이 빛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날의 뜻깊은 기념사진은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오늘도 뜨겁게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림정호

겨울철통나무생산에 총력을 집중

림업부문에서

예견성있는 전투작전과 지휘로

장진림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에 진입한 장진림산사업소에서 매일 높이 새운 전투목표를 훨씬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성과의 비결은 이곳 일군들이 겨울철통나무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생산준비를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진행한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그 어느 단위에서나 전투조직을 사전에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은 생산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생산조건이 좋은 겨울철에 년간 통나무생산계획의 많은 몫을 수행해야 하는 림업부문에서는 이 사업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하지만 당면한 통나무생산과제수행에만 급급하면서 이 사업을 소홀히 대하는 현상도 없지 않다. 올해에 현행생산이 건장한데로부터 사업소의 일부 일군들은 겨울철생산준비는 바쁜 고비를 넘긴 다음에 보자고 하였다.

겨울철생산준비를 미리부터 실속있게 진행하라는것은 당정책이다. 만약 이를 소홀히 대하면 다음해 통나무생산계획수행에서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겨울철생산준비만은 놓칠수 없다.

협의회에서 울린 김광일지배인의 절절한 목소리는 모두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사실 산비탈을 깎아 새로 도로를 닦고 산지함숙과 물전기재보관고 등을 건설해야 하는 겨울철생산준비를 현행생산과 동시에 한다는 것은 힘에 부친 일이였다. 하지만 사업소일군들은 화고한 립장을 가지고 면밀한 타산밑에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책임일군들은 대오의 기수가 되여 겨울철통나무생산을 위한 제법지들을 하나하나 밟아보면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보다 적은 투자로 생산준비건설을 다그쳐 끝낼수 있는 방도도 찾아내였다.

일군들은 현행생산을 보장하면서 생산준비건설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로력, 자재를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그 해결을 위해 뛰고 또 뛰였다.

당조직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였다.

사업소일군들과 보장단위, 여러 작업소들의 로동자들은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 현행생산과 생산준비건설에서 위훈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한사람이 두몫, 세몫의 일감을 맡아 해제끼는 속에 생산준비건설은 힘있게 추진되였다.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일군들의 정신력과 실천력은 생산설비준비에서도 발휘되였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설비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공무직장에서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마련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부족되는 자재들을 해결하였다.

공무직장에서는 제기되는 설비수리를 신속히 보장하면서 예비부속품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철야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졌다.

일군들은 현장에서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 공무직장 기능공들과 함께 부속품생산을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여러 작업소의 로동자들은 물론 종업원가족들도 성의있는 지원물자들을 안고 부속품가공현장을 수시로 찾아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결과 겨울철생산전투시작전에 계획했던 예비부속품생산도 결속되였다.

이렇듯 일군들이 증산의 돌파구로 되는 생산준비를 미리부터 완강하게 내민 결과 사업소에서는 지금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에서 높은 실적이 기록되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현지보도

증산투쟁으로 들끓는다

강계갱목생산사업소 송학림산작업소에서

중중첩첩이 늘어선 산발들, 바람에 설레이는 나무숲, 힘차게 울려퍼지는 뜨락또르와 기계톱들의 동음…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로 세차게 끓어번지는 여기는 강계갱목생산사업소 송학림산작업소 채벌장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겨울철통나무생산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려는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나무패기공들이 억세게 톱어잡은 기계톱을 나무밑둥에 바싹 들이댄다. 나무넘길 자리를 가늠하던 벌목공들이 밑대로 지그시 나무를 밀기 시작한다.

《우지끈- 쿵》

잠간사이에 어기저기서 나무들이 창공에 큰 원을 그으며 넘어간다.

련이어 넘어가는 나무에로 달려가 사방으로 뻗은 아지들에 도끼날을 먹이는 아지따기공들의 일손에 불바람이 인다. 나무들이 밑둥으로부터 웃초리까지 어느새 미끈히 다듬어진다.

서로 경쟁적으로 일손을 다그치는 벌목공들의 모습은 볼수록 미덥다.

아지따기가 끝나기 바쁘게 집재공들이 뜨락또르뒤에서 끌려나오는 쇠바줄을 통나무에 잽싸게 걸어준다. 이어 뜨락또르의 발동소리가 높아지면서 여기저기에 있던 통나무들이 움실움실 한곬으로 끌려온다.

한켠에서는 다른 뜨락또르가 통나무더미를 끌고 용을 쓰며 산길을 따라 기세좋게 내려간다.

하루에 수십㎥의 통나무를 운반하는 혁신자로 이름난 뜨락또르운전수 안철범동무라고 작업소 소장 김정철동무가 우리에게 귀띔해준다.

《지금 사업소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일념안고 겨울철통나무생산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대중의 앞장에서 아지따기에 여념이 없던 사업소 지배인 류철민동무가 하는 말이다.

산지나무러도 법석 끓는다.

사이나르기에 드바쁜 뜨락또르들, 차판에 가득 통나무를 싣고 기운차게 내닫는 자동차들…

생산조건이 좋은 겨울철에 산지통나무생산량을 최대한 늘이려는 벌목공들의 기세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검척공도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훔칠새 없이 바삐 뛰여다닌다.

산판을 누비며 화선식정치사업을 박력있게 벌려가던 초급당위원장 김영호동무가 활달한 붓글로 속보판에 위훈의 소식을 전한다.

《오후 5시현재 오늘계획 200%로 완수!》

시간이 흐를수록 채벌장은 창조와 혁신의 숨결로 더욱 세차게 끓어번진다.

본사기자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

판교림산사업소에서

판교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높이 세운 산지통나무생산목표를 매일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의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높은 목표를 세우고 겨울철통나무생산을 위한 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현행생산을 다그치면서 겨울철생산준비를 신속있게 한 이들은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모든 력량을 산지통나무생산에 집중하고있다.

산지통나무생산을 높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줄 한마음안고 떨쳐나선 작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며 매일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구당, 금평림산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림지조건에 맞는 여러가지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이면서 산지통나무생산전투를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것과 함께 사이나르기에 소발구를 적극 받아들여 산지통나무생산을 일정계획보다 1.5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룡당, 금구, 리상, 상두림산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바련하면서 산지통나무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들은 지형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통나무생산공정들에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공무부문의 로동자들은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면서 산지통나무생산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부속품가공과 설비수리를 책임적으로 보장하고있다.

뜻깊은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의하여 지금 사업소적인 산지통나무생산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부속품확보에 힘을 넣어

신양갱목생산사업소 공무작업반의 로동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사이나르기와 마감나르기에 동원된 뜨락또르와 자동차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작업반에서는 긍정적소행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기술기능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활기있게 내밀고있다.

생산준비기간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이들은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10여대에 달하는 사업소물전기재들의 대수리를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겨울철생산전투에 진입한 지금 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설비관리를 깐지게 하면서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뜨락또르와 자동차들의 만가동보장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미리 확보하고있다. 그리하여 물전기재들이 고장나면 신속히 수리하는것과 함께 이동수리전투도 힘있게 벌려 물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고있다.

공무작업반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수리전투로 하여 사업소의 겨울철통나무생산에서는 매일 높은 실적이 기록되고있다.

본사기자

생산공정을 절약형으로 개조

녕변견직공장에서

최근 녕변견직공장에서 생산공정을 절약형으로 개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같은 로력과 전력으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공장들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국내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권사기의 성능이 낮아 비단천생산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군 하였다. 권사기의 생산능력이 다른 설비들에 따라서지 못하는것이 원인이였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권사기를 개조하기 위한 기술혁신을 수심차에나 진행하였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일부 종업원들속에서 이제는 설비가 낡았기때문에 새 설비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결국 공장앞에는 새 설비를 구입하는가 아니면 설비개조에서 혁신적인 방도를 내놓는가 하는 두갈래의 길이 놓이게 되였다.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현장을 돌아보던 공장책임일군은 문득 권사기옆에 놓여있는 연사기에서 발길을 떼여 없었다.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보아온 연사기였지만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과 기술로 난관을 뚫고나가려는 그에게는 보물처럼 안겨왔던것이다.

연사기를 리용하여 권사도 할수 있지 않겠는가.

두 공정이 원리는 다르지만 마지막에 실잡기를 진행하는것은 같다. 결국 연사기에서 권사작업을 진행하면 권사기는 필요없게 되는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공장책임일군은 자기의 착상을 군중토론에 붙이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처음부터 반대의견에 부닥치게 되였다.

권사기를 해체하였다가 실패하는 경우 현행생산은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는 측도 있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생산공정상 맞지 않는다고 머리를 저었다.

바로 이때 그 일군은 확신성있게 말하였다.

《그런 식으로 사고한다면 혁신이란 말자체가 있을수 없습니다. 기어이 자체의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다음날부터 연사기개조전투가 벌어지였다.

초행길인것으로 하여 애로와 난관은 많았다. 공장의 일군들은 연사기를 개조하기 위한 기술혁신전투에 기술자들만이 아닌 기능공들까지 모두 망라시키였다. 그렇게 하니 설비들을 오래 다루어온 기능공들속에서 기발한 창의고안들이 련이어 나왔다. 권사기의 실토리를 연사기에 실치할수 있는 방도도 평범한 한 로동자가 내놓았다.

수십차례의 시험끝에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연사와 권사작업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게 연사기를 끝끝내 개조하였다.

좋은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권사기가 필요없게 되니 생산공정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높아졌을뿐아니라 적지 않은 로력과 자재, 전력을 절약하게 되였다.

연사기개조에서 덕을 본 이곳 일군들은 다른 생산공정들도 구체적으로 따져보았다.

하여 날염생산공정에서 압축기를 해체하고 적은 전력으로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여기서만도 수입에 의존하던 공기번들과 관을 비롯한 자재들이 필요없게 되였을뿐아니라 전기절약에비를 찾게 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공정의 합리적인 개조를 통하여 자력갱생이 얼마나 좋은가를 절감하였다.

본사기자 윤금찬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부재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평천부재공장에서— 본사기자 최충성 찍음

감자종자생산계획 넘쳐 수행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감자조직배양공장에서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감자조직배양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뜻깊은 올해에 감자종자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제시하신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감자농사에서 자기 단위가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시농촌경리위원회의 방조와 농업연구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염도가 높아진 수백t의 온실흙을 들어내고 감자종자생산에 적합한 토양으로 교체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동시에 모래와 유기질복합비료, 톱밥, 벼겨 등의 비례를 과학적으로 맞추어 온실토양의 과학기술적조건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쳤다.

일군들은 줄기수조절에 의한 감자종자생산방법, 차단막재배에 의한 감자종자생산방법 등 앞선 영농방법들과 기술, 좋은 경험들을 혁신적으로 받아들이였다.

또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육조건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수설비들을 더욱 실리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결과 올해 감자종자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평양시농촌들의 다음해 감자생산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는 중요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본사기자 박영진

류원신발공장창립 3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류원신발공장창립 30돐기념보고회가 24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안정수동지와 평양시당위원회 부위원장 김봉석동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류원신발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안정수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류원신발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이며 각종 운동신발들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경공업기지이라고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인민들에게 질좋고 멋있는 신발을 안겨주기 위해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77(1988)년 11월 24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사출운동신발생산공장을 꾸려주시고 생산과 경영활동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공장의 로동계급이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류원신발공장은 창립후 지난 30년간 당의 경공업정책을 충직하게 받들고 신발공업부문의 앞장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며 창조와 혁신으로 빛나는 자랑찬 연혁사를 새겨왔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인민생활향상의 중요한 초소를 지켜선 영예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지닌 공장의 로동계급이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직장별, 작업반별따라알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맹렬히 전개하여 해마다 달려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의 년령별기호와 미감에 맞는 새형의 도안들을 창작하고 380여가지의 운동신발들을 개발하여 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능력이 큰 종합적인 신발창생산기지를 일떠세우고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높이였으며 전반적생산공정을 에네르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불타는 애국충정과 견인불발의 투쟁기풍을 발휘하여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고 나라의 경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공헌하여온 류원신발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지배인 김을길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창립 30돐을 맞으며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데 대하여 언급하고 공장현대화와 증산투쟁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모든 신발들을 가벼우면서도 보기 좋고 견고한 명상품, 명제품으로 만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장의 전체 로동계급이 조국애, 공장애를 소중히 간직하고 설비들과 건물들을 정상보수, 정상관리하며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집단안에 혁명열, 애국열, 투쟁열이 차넘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높이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도로에 비낀 애국의 마음

중화군당일군가족소대원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하는 녀성들이 많다.

그들속에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도로관리사업을 도맡아나선 중화군당일군가족소대원들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군당일군가족소대가 무어진것은 지금으로부터 몇해전이였다.

눈에 익고 손에 설다고 도로관리사업을 처음 해보다나니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이른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도로관리를 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삽부의 무더위와 살을 에이는 강추위속에서도 그들의 하루일과는 변함이 없었다. 장마철에는 도로에 비물이 고일세라, 겨울에는 눈이 쌓일세라 도로관리에 자기들의 열정을 다 바쳤다.

이른아침에도, 깊은 밤에도 도로를 쓸고 길섶의 가로수며 잔디, 꽃나무들을 가꾸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로 고동친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당이 바라는 어렵고 힘든 초소를 굳건히 지켜간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였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였기에 가족소대원들은 검쳐드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웃으며 헤쳐나갔고 맡은 일을 어김없이 수행하군 하였다.

서로 돕고 이끄는 나날속에 군당일군가족소대는 전투력있고 생활력있는 집단으로 자라났다.

군의 일군들은 가족소대원들이 도로보수관리에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비옷과 솜옷, 작업복 등을 해결해주고 필요한 조건들을 보장해주기 위해 여러모로 애썼다. 또한 그들의 자그마한 성과와 소행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주고 내세워주었다.

도로관리를 하는 바쁜 속에서도 가족소대원들은 중요영농철이면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며 읍지구의 논밭으로 달려나가 농장원들 못지 않게 모내기와 김매기를 해제꼈으며 읍지구 살림집건설이 한창일 때에는 흔석운반도 도맡아하고 진심어린 지원사업으로 밤늦게까지 건설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기도 하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이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도 찾아하고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에서도 앞장에 섰다.

철거된 주민세대들의 고충을 남먼저 알고 자기 집 웃방을 내여 그들이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해준 이야기, 주요명절때마다 집에서 키우던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들과 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인민군대를 원호한 사실…

하기에 군안의 주민들은 당의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군당일군들의 가족들이 역시 다르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있다.

오늘도 군당일군가족소대원들은 군의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일념안고 남편들과 함께 당의 숭고한 뜻을 꽃피워가는 길에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신경섭

모판자재준비를 앞당기기까지

순천시 동암협동농장에서

순천시 동암협동농장에서 다음해농사차비에 힘을 넣고있다. 주목되는것은 모판자재준비를 지난 시기보다 한달이상 앞당기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농장에서는 몇해전부터 선진적인 큰모재배방법을 받아들이였다. 경험에 의하면 큰모재배는 모판에서 오랜 기간 보기르기를 하는 조건에서 합격징표를 갖춘 다수확모를 길러내는가 못내는가에 따라 정보당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였다.

알곡증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실한 모를 길러내는데 있다고 볼 때 모판자재준비를 잘하는것은 선차적인 문제로 나섰다.

일군들은 올해농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 부족점을 찾아보게 되였다. 그것은 년초에 들어와서야 활창대를 비롯한 모판자재준비를 서두르면서 그 질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것이였다. 일부 작업반들에서 질이 담보되지 않은 모판자재를 리용하다나니 모판관리에 배가의 품을 들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특히 바람이 세게 불거나 기온이 갑자기 내려갈 때 모판안의 온도보장을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못하여 피해를 당하군 하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벼모의 생육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생기였다.

결국 모판자재준비에서의 빈틈이 벼모를 잘 키우는데 지장을 주게 되였던것이다.

농장일군들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오늘의 적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우리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지 않는가.

당의 의도를 새겨볼수록 큰모농사는 모판농사이라고 말하면서도 모판자재준비를 위한 주도세밀한 작전을 따라세우지 못하였다는 자책감이 밀려들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의 지휘관들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자기 단위의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찾은 교훈이 클수록 분발심과 실천력이 강해졌다.

일군들은 농사에 필요되는 모든 모판자재들을 종전보다 짧은 기간에 더 많이, 더 높은 질적수준에서 마련할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농장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지혜를 합쳐 그 수행을 위한 방도들을 찾아냈다.

우선 일군들은 뜨락또르와 부림소를 가을갈이에 집중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난알털기를 하던 작업조들을 그대로 두고 한개 조는 전문적으로 생물활성퇴비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나머지조들에서는 모판자재준비에 힘을 넣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 가을철에 나래를 비롯한 모판자재를 마련하여 좋았고 다음해농사차비를 위한 적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작업반들을 맡고나가 초급일군들과 함께 합리적인 로력배치와 작업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특히 올해의 교훈으로부터 활창대를 집적으로 만들고 바람막이바자를 해당한 크기별로 든든히 역을수 있는 새끼줄생산에 큰 힘을 넣게 하였다. 그리고 일군들부터가 부족되는 비닐박막을 비롯한 모판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였다.

일군들의 이런 빈틈없는 작전과 지휘, 헌신적인 노력은 대중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는 밑거름이 되였다.

다음해에 포전마다 풍요한 작황을 펼쳐놓으려는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모든 작업반들에서는 모판자재들이 그윽히 마련되여갔다. 결과 농장적인 모판자재준비사업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농장의 현실은 일군들이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질 비상한 각오를 안고 과학적인 작전과 헌신적실천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갈 때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영학

혁신창조의 묘술을 찾아 끝장을 보는 일본새

618건설돌격대 평안남도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고산파수종합농장 능력확장공사에 동원된 618건설돌격대 평안남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파일가공기지와 파일보관고건설을 비롯한 여러 대상공사에서 뚜렷한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능숙하고 대담한 작전과 지휘로 혁신창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전투성과를 확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며 늘 일감을 찾아줘고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해나가야 합니다.》

려단이 대상공사를 시작할 때 제기된 난관은 로력과 자재가 긴장한것이였다. 일부 일군들은 대대들에 기능공들이 부족한 조건에서 속도와 질을 보장할수 있겠는가 하고 우려하였다.

김길운정치부장은 이 사실을 스쳐버리지 않았다. 그 우려가 나약성을 낳고 절국에는 패배주의로 이어질수 있기때문이였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선관철로 돌파는 헌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킬줄 아는 야전형의 지휘관들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이 결사관철의 기수가 되여 앞채를 메고나갈 때 난관극복의 돌파구가 열리고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문제를 이렇게 본 그는 일군들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였다. 이 과정에 그가 일군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준것이 있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헌출위인상에 대한 감동깊은 일화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 강한 요구성과 대담성을 지닌 혁명의 지휘성원이 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이야기들은 커다란 감화력을 불러일으켰다.

당에서 바라는 일군의 자질과 품성을 우리가 원만히 갖추었다고 말할수 있는가?

일군들은 이 물음에 떳떳이 대답하기 위해 분발해나섰다. 죽으나사나 기어이 해낼 각오로 나서면 못해낼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배심을 가지고 려단자체의 힘으로 여러 대상공사를 다같이 내밀기 위한 작전을 하였다. 정치부장은 이들이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여기서 묘술을 찾도록 일깨워주며 키잡이를 잘하였다.

신심이 생긴 이들은 우선 시공의 전문화를 실현하는데 힘을 넣었다. 대대마다 로력과 수단 특히 기능공력량이 작이한 사실은 그에 맞게 공사대상분담을 바로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때문에 이들은 매 대대의 특성을 놓고 구체적인 타산을 하였다. 대대지휘관들의 능력은 어떠하며 기능공은 몇명인가 하는것으로부터 작업장까지의 거리와 전출시간 등을 면밀히 따져보았다. 여기에 기초하여 정성시대대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대대는 미장과 타일붙이기를, 순천시대대는 로장공사를 전문으로 맡아하도록 하는 식으로 대대들의 작업분담을 명백히 하였다. 이 사업은 응당한 결실을 가져왔다.

새로 일떠세우는 건물의 지붕공사를 할 때였다. 일군들은 이 과업을 먹천시대대에 맡겨주었다. 이 대대의 정치지도원과 참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오랜 기간 대상건설을 해오는 나날에 이런 공사와 관련한 많은 경험을 쌓았던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 일군들은 지붕공사에 기능이 부족한 다른 대대들을 동원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로력과 시간을 랑비할뿐아니라 시공의 질을 높일수 없으므로 먹천시대대가 공사를 전적으로 맡도록 하였다.

대대는 이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때 공사의 질보장을 위해 내려왔던 전문단위의 기술자들까지 대대기능공들의 일솜씨에 탄복하였다.

시공의 전문화로 안아온 이 결실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무슨 일이나 정책적요구대로 해나가는 습벽을 붙일 때 반드시 성공한다는것이였다.

이것을 확신한 일군들은 과학적타산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진취적으로 하였다.

파일보관고층막치기할 때를 놓고보자. 려단이 맡은 면적에 층막을 치자면 버팀대가 많이 요구되였다. 당시 려단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버팀대밖에 없었다. 부족되는 목재를 가져올데도 없었다.

이때 김금철려단장, 김성국참모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걸린 문제의 해결방도를 누가 찾아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기발한 착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자력갱생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것을 명심한 이들은 절약하며 증산하자는 립장에서 돌격대원들과 지혜를 합쳐 실정에 맞는 방도를 찾았다. 려단에서는 벽체우에 일정한 간격으로 콩크리트보를 설치하면서 한쪽으로는 콩크리트부재를 만들었다. 이 부재를 기중기차로 들어올려 콩크리트보들사이에 놓는 방법으로 층막을 형성하였다.

일제식이 아니라 부재조립방법을 받아들인 결과 버팀대는 콩크리트보를 설치하는데만 리용하여 적은 목재로도 많은 면적의 층막치기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다.

이뿐이 아니였다. 일군들은 시공조직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여 려단이 벽체타일붙이기를 비롯한 여러 공정들을 빨리 해제낄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지펴올려 돌격대원들이 합리적인 기공구들을 제작리용하면서 종전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완성하던 장식미장을 빨리 해낼수 있도록 하였다.

당정책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혁신창조의 묘술을 찾아줘고 과학적인 작전과 끝장을 보는 일본새로 자력갱생의 위력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질수 있다. 려단일군들의 사업기풍은 이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 철

불같은 헌신이 안아온 결실

선천군버섯공장에서 들은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에서는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이 가장 정의로운것으로 되며 최우선시되고있습니다.》

최근 선천군이 몰라보게 번모되고있다. 그만큼 자랑도 늘어나고있다.

얼마전 우리가 선천군버섯공장을 찾았을 때였다. 올해에 공장이 군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새로 멋들어지게 건설되였다고 하는 지배인의 말에는 자랑이 한껏 실려있었다.

2층으로 건설된 공장은 년간 수십t의 버섯을 생산하게 되여있는데 오는 사람마다 건물도 멋있고 자리 또한 명당자리라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한다.

정말이지 양지바른 산기슭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공장의 모습은 마치 한폭의 그림같았다.

공장의 진경에서 이욱토록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배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군에서 버섯공장건설을 새로 시작한것은 불과 몇달전이였다.

군의 책임일군들은 버섯생산에 유리한 곳에 공장의 터전을 잡기 위해 신발창이 닳도록 걸음을 많이 하였다. 며칠만에 위치가 확정되였고 군내 청년들로 조직된 돌격대가 착공의 첫삽을 박았다. 하루빨리 공사를 완공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할 일념으로 전투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공장건설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그럴수록 공사장을 찾는 책임일군들의 발걸음은 더욱 잦아졌고 요구성 또한 나날이 높아갔다.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면서도 보기에도 산뜻하게 외부마감을 잘할데 대한 문제며 사시절 버섯을 생산하는데 맞게 온도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야외에 건설한 온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완공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도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고, 완공되는 날까지 잔손질을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비단 우리 공장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배인은 건설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책임일군들을 찾아가면 사무실은 언제나 비어있었다고, 소총, 단총살림집건설장이나 유기질복합비료공장건설장, 산림복구전투장 등에서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늘 전투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며 능숙한 지휘와 이신작칙으로 대중을 혁신과 위훈창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는 책임일군들의 모습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전투적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올해에 군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당실한 새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폈으며 새로 건설된 공장들이 머지않아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어 어려가지 버섯을 광광 생산하겠다는 지배인의 말을 뒤에 남기고 우리는 공장을 나섰다.

그러는 우리의 가슴속에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어 선천군은 보다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리라는 확신이 굳게 자리잡았다.

본사기자 김 진 욱

집단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승호리세멘트공장 소성1직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고 온 사회가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이며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다.》

일터에 대한 승호리세멘트공장 소성1직장 로동계급의 애착심은 남다르다.

자기들의 일터에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기때문이다.

부강조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여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여가자.

이런 불같은 일념을 안고 이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세멘트생산의 생명선인 소성로들의 숨결을 억척같이 지켜가고있다.

지난 8월 어느날 밤이였다.

작업현장을 돌아보던 직장장 김영건동무는 한 소성로절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고급기능공인 소성공 오승철동무가 교대시간이 벌그나지나도록 기능이 어린 소성공에게 로안의 불길상태에 따르는 조작방법을 배워주기에 여념이 없었던것이다.

소성로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데서 로조작을 맡은 소성공들의 임무가 자못 크고 무거웠다. 하기에 직장의 오랜 기능공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신입공들의 《스승》이 된것이였다.

잠시후 오승철동무는 젊은 소성공을 미덥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텔레비존에 나오는 아름다운 정양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지군 하오. 날로 번모되는 수도의 모습에 바로 우리의 땀방울도 소중히 깃들어있기때문이요.》

그러는 오랜 소성공을 지켜보는 직장장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것은 오승철동무만이 아닌 직장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소성로보수전투때에는 제식지 않은 로속에 작업반이 따로 없이 지지마다 뛰여들고 축조작업이 진행될 때면 축로작업반원들을 도와 스스로 내화벽돌운반에 떨쳐나서군 하는 사람들.

때로는 몸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무릎, 세꿈씩 일하고 작업의 짧은 휴식시간마저 동지들을 위해 헌신하며 힘겨운 전투를 밀리군 하는 그들이였다.

지난 9월초 어느날이였다. 한 소성로에서 랭각계통의 가동불판 하나가 떨어져나간것을 발견한 수리작업반의 용접공 한정남, 박세광동무들은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기존방식대로 랭각계통을 수리하자면 로의 가동을 멈추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체의 힘으로 로를 세우지 않고 결함을 퇴치할것을 결심하였다. 증산돌격운동의 앞장에 설 일념으로 온 공장이 부글부글 끓고있는 그때 순간도 로를 멈출수 없었던것이다.

용접가위를 억세게 틀어쥔 그들은 교대로 랭각계통안에 뛰여들어 용접불꽃을 날렸다.

이 사실을 알고 직장종업원들이 달려나왔을 때에는 수리전투가 이미 끝난 뒤였다.

자기들을 들러싸며 왜 위험한 작업을 동무들끼리 했는가고 나무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도 슴결도 하나가 되여 전진의 보폭을 크게 하는 나날에 직장에서는 참으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나의 기대, 나의 일터!

지금도 그들은 이런 애착심을 안고 뜻깊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건 일

류다른 협의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정한 인민의 사회로서의 우리 사회의 참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한집안식구처럼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아나가는데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가 평양제1백화점을 찾았을 때였다. 그날 아침 첫 시간에 초급당위원장방에서는 협의회가 진행되고있었다. 우리는 아침 첫 시간에 열린 협의회이니 아마 긴급한 문제가 토의되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협의회가 끝난 후 초급당위원장으로부터 협의회의 진행과정을 전해들은 우리는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협의회의 토의안건은 뜻밖에도 백화점종업원인 한 제대군인청년의 결혼식을 잘해주기 위한 문제였다.

협의회에서는 몇달후 제대군인인 전혁동무의 결혼식이 있다는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지고 작업반별로 기념품을 어떤것으로 준비하겠는가 하는 토의가 진행되였다.

협의회참가자들은 시종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잠시후 초급당위원장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전혁동무를 잘 도와줍시다. 부모없는 그에게 어머니가 되여주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가 아닙니까.》

이어 토론들이 있었는데 많은 초급일군들이 앞을 다투어가면서 특색있는 기념품들을 준비하겠다는 좋은 의견들을 내놓았다. 특히 지난 기간 전혁동무를 위해 뜨거운 진정을 바쳐온 리영희동무의 열의는 대단했다.

이것은 례사로운 날에 평양제1백화점에서 있은 하나의 평범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평양제사공장(당시)의 부모없는 녀성로동자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간곡한 당부가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대흥청년영웅광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흥국수집의 소박한 봉사기록장을 보시면서 부모없는 제대군인들의 결혼식을 차려준 장면을 찍은 사진도 있는데 정말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신 이야기가 오늘도 뜨겁게 전해지고있다.

그날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이 땅에서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태여나고있다.

하나의 협의회토의안건에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워주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빛내여가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성격이 얼마나 뜨겁게 맥박치고있는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 가장 영예롭고 긍지높은것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우리 인민이야말로 복받은 인민이다.

박 주 향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개천탄광에서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어려 채탄중대, 굴진소대들이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종합중대 김광철채탄중대의 탄부들은 증산의 돌격로를 앞장에서 열어갈 불타는 열의밑에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 탄광적으로 제일먼저 년간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중대 심광성굴진소대의 굴진공들은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이 곧 석탄생산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련속선공, 련속발파의 동음높이 매일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서재경 김창수채탄중대, 류동경 최상덕채탄중대, 전진갱 차경철채탄중대의 탄부들은 소대별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탄층조건에 맞는 설비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캐낸 석탄을 제때에 실어나르기 위한 작업조직을 짜고들어 매일 많은 량의 석탄을 생산하였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전 순 희

아시아축구련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쉐이크 살만 빈 이브라힘 알할리파 아시아축구련맹 위원장 겸 국제축구련맹 상급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아시아축구련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근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태양의 성지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 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대표단은 또한 평양국제축구학교 등을 참관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1일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마철수대사가 정중히 전하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앞으로 조선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모든 분야에서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따쥐끼스딴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0일 따쥐끼스딴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에모말리 라흐몬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김형준대사가 정중히 전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와 충심으로 되는 축원을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지지하며 조선의 평화와 안전보장,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대표단

제23차 민족올림픽위원회 협회총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우리 나라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체육상 김일국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대표단이 일본에서 진행되는 제23차 민족올림픽위원회 협회총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2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우리 나라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인 체육성 제1부상 김정수동지가 전송하였다.

은을 내는 과학기술보급기지

령남배수리공장 과학기술보급실을 찾아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하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령남배수리공장의 과학기술보급실을 찾았다.

이곳 과학기술보급실로는 매일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이 찾아와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고있다.

과학기술학습열의를 높여

이곳 과학기술보급실에서는 지배인, 기사장은 물론이고 각 부서의 행정일군들이 학습강사로 자주 출연하고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매월 1차이상 월과학기술보급정형을 생산총화와 결부하여 총화하면서 일군들부터가 과학기술을 남먼저 습득하고 그것을 널리 보급하는 사업에 앞장서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정상적으로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진행되는 강의에 일군들 누구나가 학습강사로 직접 출연하게 되였다.

이렇게 하니 모든 일군들이 세계적인 과학기술발전추세 등과 관련한 학습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단위의 사업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추켜세우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탐구하기 위해 과학기술보급실을 더 자주 찾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과학기술보급실에서 누구나 현대선박건조추세자료들이 수록된 특화편집물을 보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고있다.

이런 주도세밀한 조직사업은 과학기술보급실의 열성독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고있다.

특화강의와 자료열람을 통해 본 실리

《초대형원유시추선》, 《초대형려객선의 기술발전력사》, 《선박건조공정에 대하여》, 《선체구조설계에서 기준법설정방법》, 《전기를 절약하는 휴대용직류용접기》, 《배추전기》, 《새로운 용접심선생산방법》, 《미래의 선박》, 《도색을 벗기는 새기술》 등 이곳 과학기술보급실에서 하는 특화강의의 폭은 대단히 넓다.

그 하나하나의 특화강의들은 이곳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기능공들에게 새로운 착상의 나래를 펴게 하고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의 지름길을 안내해준다.

제일 크게 력을 본 사람들은 공장의 설계연구소의 설계원들이다. 그들이 과학기술전당홈페지를 통하여 세계적인 때설계와 건조추세자료를 열람한것, 중앙과학기술통보사홈페지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SR전동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와 건구에 대한 자료들을 열람한것이 5 000t급무역짐배 《자력》호와 태양빛전지유람선의 건조에서 큰 은을 나타냈다.

뿐만아니라 시추탐사선설계에서도 그리고 금산로수산사업소의 《단풍》호계렬의 만능어선건조에서도 과학기술보급실에서의 특화강의와 각종 홈페지를 통한 자료열람은 설계의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게 하였다.

기술혁신명수들의 새 결의

실장 리진동무는 5 000t급무역짐배 《자력》호를 건조할 때 주기관, 축계통을 비롯한 각종 배기관설비들을 고정시키는 이동식구멍가공기를 새롭게 창안제작하여 배건조에 이바지할수 있은것은 과학기술보급실에서 많은것을 배웠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그보다 두배이상의 짐을 실을수 있는 큰 무역짐배를 새로 건조하는데서도 단단히 한몫하겠다고, 그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과학기술보급실을 더 자주 찾는 열성독자가 될 결의를 다졌다.

공장의 3대혁명소조책임자 김철동무는 이곳 과학기술보급실에서 금속공학, 기계부분품, 재료공학과 관련한 도서들, 탄산가스용접과 관련한 기술도서들 등 각종 자료들을 많이 열람한것이 탄산가스용접심선생산공정을 확립하는데서 큰 도움이 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과학기술보급실의 자료를 찾아보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보급실의 자료기지를 더 풍부히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하였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 대표단 조중국경공동위원회 제4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외무성 부상 박명국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조중국경공동위원회 제4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2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전송하였다.

로씨야정교회대표단 도착

대외관계담당위원장인 총주교 일라리온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정교회대표단이 2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지선 조선정교위원회 위원장과 알렉싼드르 마메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아시아축구련맹대표단이 떠나갔다

쉐이크 살만 빈 이브라힘 알할리파 아시아축구련맹 위원장 겸 국제축구련맹 상급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아시아축구련맹대표단이 24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서기장 김장산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실험실습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공고히 다져나간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에서—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민족의 자랑 조선의 국견-풍산개 (1)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일러왔으며 슬기롭고 용감하며 순결하고 강의한 민족의 넋과 기상도 다름아닌 백두산에서 태여났다고 하였다.

명리하고 이악하며 용맹하고 민첩한것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의 국견 풍산개도 백두산과 잇닿아있는 북부고산지대에서 나왔다.

오랜 세월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단군민족의 력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조선고유의 토종개인 풍산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오늘날 조선의 국견으로 그 이름을 떨치고있다. 조선민족의 기질을 신통히도 닮은 풍산개에 대한 취재를 하는 과정에 우리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의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세울줄 모르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참다운 애국자로 될수 없습니다.》

풍산개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사리원시였다. 거기에 오래동안 국견을 연구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때문이였다.

농업연구원 축산학연구소에서 우리는 소장인 옥진영동무를 만났다. 풍산개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풍산개에 대한 사진자료들부터 꺼내여 하나하나 보여주며 이렇게 말꼬리를 떼였다.

《풍산개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백두산의 흰눈과도 같이 희디흰 몸색깔은 정말이지 단일민족의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상징하는것 같습니다. 정기도는 두눈과 곧추 세운 두귀만 보아도 대뜸 용맹한 기상을 느낄수 있습니다. 유연하고도 탄력있고 무게있으면서도 균형잡힌 풍산개의 모습을 보느라면 언제나 대바르고 용감하며 담차고 날쌘 조선사람의 기질을 그대로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전문가다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선조들이 어떻게 풍산개의 시조로 되는 조선토종개를 길들여왔고 그와 더불어 어떤 문화를 창조하였는가에 대하여서도 더 자세히 알고싶은 호기심을 누를수 없었다.

조선토종개의 기원과 그후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는 소장의 이야기는 우리를 태고적의 세계에로 이끌어갔다.

그는 이 땅에 원시림이 울창하던 아득히 먼 옛날의 시대적 환경을 방불히 볼수 있게 하는 여러가지 다매체편집물을 콤퓨터로 보여주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개는 늑대로부터 진화되였다고 한다.

세계5대문화의 하나인 대동강문화가 창조된 이 땅에서 조선옛류형사람들은 끊임없는 생존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수많은 야생동물들중에서도 예민한 후각과 청각, 뛰여난 밤시력을 가진 늑대를 사냥과 자기 집단의 보호에 리용하기 위해 점차 집짐승으로 길들이기 시작하였다는것이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화면을 보니 모든것이 선명하게 안겨왔다.

콤퓨터화면에는 구석기시대 후기에 원시개가 형성되고 신석기시대에 이르러 그 개들이 집짐승으로 되여 조선토종개의 시조를 이루게 되는 전과정에 대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현시되고 있었다.

《고조선시기에 이르러 개들은 사람들의 생활 이모저모에 적극 리용되였습니다. 상무기풍이 높았던 고구려시기 나라에서는 해마다 사냥경기를 크게 하였는데 이때마다 사냥개들이 범이나 사슴, 메돼지들을 쫓아 단단히 한몫하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우리 나라의 토종개들가운데서 사냥개로 될만 한 개들을 골라 훈련을 주는 방법으로 키워왔는데 그것들중에서도 엄혹한 북부산간지대의 자연지리적조건속에서 살아온 개가 바로 오늘날 조선의 국견으로 세상에 그 이름이 자자한 풍산개(KOREAN PHUNGSAN DOG)라고 하였다.

잠시후 콤퓨터의 화면에는 두개의 사진자료가 대비적으로 나란히 현시되였다. 하나는 고분에서 나온 부장용개조각이였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의 풍산개의 모습이였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고조선말기 평양지역의 고분에서 발굴된 부장용개조각의 형상이 두귀가 곧추 서고 꼬리가 한쪽우로 말려올라간 오늘날의 풍산개의 모습과 비슷한것으로 미루어보아 풍산개의 시조가 그때에 벌써 형성된것으로 보아진다고 말하였다.

이윽하여 그는 풍산개가 세계의 개품종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것을 립증해주는 객관적인 자료들도 보여주었다.

개의 품종과 계통관계를 연구하는 여러 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풍산개형개품종들이 적어도 5천년동안 동북아시아의 전지역에서 진화과정을 거쳤다는것을 밝힌 자료,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풍부한 자연부원에 의거하여 경제와 문화를 급속히 발전시켜온 고구려가 통족의 나라인 백제, 신라, 가야는 물론이고 바다건너 일본에도 커다란 정치, 경제, 문화적영향을 주었다는 자료 등이 무척 우리의 흥미를 끌었다.

그 자료들중에는 어느 한 나라의 교수가 자기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과거에 조선사람들과 조선개가 일본에 많이 건너가 조선개와 일본개사이의 광범한 쉬끼임이 이루어졌으므로 조선이 일본의 이름난 개품종들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내용도 있었다.

풍산개들이 점차 사람들의 류동을 따라 우리 나라 남쪽지역에로도 이동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처럼 풍산개는 수천년전부터 우리 나라 북부지방과 중국의 동북일대에 토착하여 살고있던 전형적인 사냥개이며 우리 나라의 전반지역과 일본에서 풍산개형개품종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구석기시대유적인 석장리유적과 신석기시대후기 유적인 농포리유적에서 나온 개조각품들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당기며 호랑이와 사슴 등을 사냥하는데 그일에서 기세차게 집승들을 몰아가고있는 사냥개의 모습이 그려져있는 4세기 말엽-5세기 초엽의 고구려사냥그림을 비롯하여 세나라시기 고구려무덤벽화들과 그 이후시기의 여러 미술작품들에 그려진 개들의 형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것만 보아도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의 령역에 개가 지울수 없는 자취를 남기였다는것을 충분히 느낄수 있다고 하였다.

고려시기 문인이였던 최자의 저서 《보한집》에 기록된 개가 풋밤에 산불이 났을 때 술에 취하여 잠든 주인을 구원하고 숨진 이야기, 고려시기 경성지방의 어느 한 횡재가 부모를 잃은 눈먼 아이를 밥먹으러 갈 때도, 물을 마시러 우물로 갈 때도 길안내를 해주면서 돌봐주어 의전이라고 일러온 이야기, 토산지역에 사는 어느 한 농사군가정의 안해가 강물에 떠내려가는것을 구원하고 죽은 횡개에 대한 이야기 등 의로운 개에 대한 설화들과 그렇듯 충실한 개들에게 선조들이 충전분과 의전비를 세워주었다는 자료도 아주 인상적이였다.

선조들이 개와 관련하여 남긴 수많은 미술유산, 문학유산들에 대한 통속적인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풍산개를 그 어느 동물보다도 애호하고 자기들의 생활에 적극 리용해온 당시 사람들의 생활세태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조선토종개의 기원과 그후의 변천과정에 대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구수하게 이야기를 펴나가던 옥진영소장은 그런 풍산개가 홍범도의병대를 도와 후치령싸움에서 용맹을 떨쳤다고, 그러나 그 이후 일제의 략탈책동으로 말미암아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격한 심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1930년대 후반기에 사초정지수지공사장에서 일어난 로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풍산개의 용맹하고 이악한 기질을 더 잘 알게 된 일제는 풍산개를 략탈해가기 위해 미쳐날뛰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과 문화유산들을 닥치는대로 강탈해가던 일제는 세계에 이름난 우리의 토종개자원을 말살하기 위하여 참으로 악착한짓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일제가 대륙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일본군의 겨울철 추위막이용털가죽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면서 우수한 토종개들을 닥치는대로 략탈해갔으며 미친개병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수많은 개들을 마구 잡아죽이였다는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는 일제가 1934년 《일본개보존회》를 조직하고 일본개료준에 립각한 심사규정에 따라 우리 나라 토종개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등록을 진행하여 우리의 풍산개자원을 깡그리 빼앗아가려고 책동한 자료, 풍산개가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면서 부산에 있던 일본상인들이 이 개를 사가는데 저저마다 열을 올렸다는 자료, 바다건너 일본으로 실려가는 풍산개의 모습이 찍힌 사진 등을 보여주었다.

민족의 운명과 함께 멸종의 위기에 처하였던 풍산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아오신 조국해방의 기쁨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생활속에 다시금 당당히 자리잡게 되였다.

풍산개가 일제놈들에 의하여 많이 없어지고 잡종화된것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우리 나라의 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들을 잘 보존하도록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45(1956)년 4월 풍산개는 국가천연기념물로 등록되였다.

주체47(1958)년 5월 량강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풍산개순종은 아주 좋은 품종이라고, 지난날 일제놈들은 풍산개순종을 략탈하여다가 군견으로까지 리용하였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풍산개는 군견으로도 쓸수 있고 사냥도 할수 있으며 집도 지킬수 있어 우리 나라에 절실히 필요하기때문에 그 순종을 조사해볼데 대하여 일군들에게 몸소 과업도 주시였다.

주체52(1963)년 8월에도 김형권군(이전의 풍산군)을 현지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풍산개는 조선개의 고유한 특성을 다 가지고있는 명리한 개로서 자기를 길러주는 주인에 대하여서는 순하지만 적수에 대하여서는 맹수와 같이 사납다고, 다른 개들은 싸울 때 적수의 목등을 물어뜯군 하지만 풍산개는 정면으로 들어가 적수의 숨통을 단번에 물어제낀다고,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시양개가 제일인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며 시양개가 풍산개보다 키는 크지만 싸울 때 풍산개한테 끔짝 못한다고, 풍산개는 범도 잡는다고 하시면서 다른 개들에 비한 풍산개의 용맹성에 대하여서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풍산개순종을 빨리 찾아내여 많이 늘여야 하겠다고 절절하게 교시하시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파발리마을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유명한 풍산개를 많이 기르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주체65(1976)년 7월 또다시 김형권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풍산개의 사육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면서 풍산개순종을 빨리 번식시키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였으며 여러 기회에 일군들을 만나시여서는 풍산개는 다른 나라 개에 비하여 용감하고 사나운 개이며 이악스럽게 생겼기때문에 사냥개로 쓰는데는 아주 좋다고 교시하시였다.

민족의 재부를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풍산개순종을 보호증식시켜나가는데 필요한 국가적조치들이 취해졌으며 풍산개천연기념물보호구역도 김형권군에 생겨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풍산개는 오늘 조선의 국견으로 그 이름을 더욱 떨치고있다.

주인에게는 철저히 순종하지만 사냥할 때에는 적수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며

생활력 또한 매우 강한것으로 하여 사냥개와 경비개로서는 최고로 손꼽힌다는 풍산개,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의 기질을 닮아 홍범도의병대가 후치령싸움을 할 때에도 용맹을 떨쳤건만 나라없던 그 세월에는 민족과 함께 수난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풍산개의 력사를 더듬어볼수록 우리에게는 새삼스럽게 되새겨지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나라를 잃으면 민족이 자랑하는 풍산개와 같은 자연유산마저도 지켜낼수 없다는 력사의 진리였다.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산천도 빛나고 이 땅의 재부도 민족의 자랑으로 빛을 뿌리게 된다는 력사의 메아리였다.

본사기자 백성근

수필 용출구앞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당의 믿음과 사랑,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기초한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대오의 공고성과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기본담보가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찾았던 우리는 온도가 80℃나 되는 뜨거운 물이 쉬임없이 솟구치는 용출구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용출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군의 책임일군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군을 찾아주시였을 때는 한밤중에조차 열기가 가셔질줄 몰랐던 지난 8월 중순이였습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바치신 우리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끊임없이 뿜어오르는 온천물을 바라보느라니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 이곳을 찾으시여 조국을 해방한 다음 경치좋은 명승지마다에 휴양소를 지어놓고 우리 인민들이 마음껏 즐길수 있게 하려고 하였는데 그 구상이 오늘에야 비로소 실현되고 있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해양의 미소와 강서약수공장을 찾으시여 산좋고 물맑은 우리 나라에는 가는 곳마다 약수와 온천이 대단히 많다고, 이것을 잘 리용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일군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가슴은 불덩어리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공기처럼, 해빛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랑의 샘줄기가 되여 흘러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은정.

마를줄도 진할줄도 모르는 그 사랑의 원천은 과연 그 어디에 있는것인가.

이르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떠올라 눈금은 뻐릿이 젖어들었다.

지난 8월 억수로 퍼붓는 소낙비와 뜨거운 물이 피워올리는 물김에 옷자락은 푹 젖어들건만 그 무슨 보석이라도 찾으신듯, 쌓인 피로가 다 가셔지신듯 용출구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당보의 지면을 통하여 뵙게 된 우리 인민은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고도 용심깊은 그 사랑이 그대로 물줄기가 되여 솟구치는 용출구앞에서 나는 들었다.

더 높이 울려퍼질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만이 아닌 어머니 우리 당의 뜨거운 목소리를.

그리고 확신하였다.

대를 두고 이어지는 어머니 우리 당의 위대한 사랑의 정치와 더불어 고마운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시책은 인민의 만복을 꽃피우며 끝없이 이어지리라는 것을.

본사기자 김성룡

비로봉에서 보는 금강산의 일만경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금강산을 비롯하여 아름답고 경치좋은 명승지들이 많습니다.》

예로부터 산악미, 계곡미의 황홀한 풍치와 함께 바다가경치, 호수경치에 바람과 구름이 봉우리들을 감도는 풍운조화의 경치까지 겸친데다가 울창한 산림과 희귀한 동식물, 만가지 조화를 부리는 물의 정경으로 하여 이름높은 내 나라의 자랑 금강산.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는 천하제일명승에는 금강산의 최고봉이며 태백산줄기의 주봉의 하나로서 지형구성의 복잡성과 산악미의 풍부성으로 하여 다른 산악들보다 장엄하며 특히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을 비롯한 명산의 일만경치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는 비로봉(해발높이 1 639m)도 있다.

비로봉에 오르면 내금강의 부드럽고 유정한 자태와 외금강의 웅장한 모습, 해금강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안겨온다.

남쪽과 북쪽으로는 길게 뻗은 산봉우리들의 모습이 웅장하게 펼쳐지고 동쪽으로는 해금강의 절경과 함께 조선동해의 아름다운 풍경이 황홀하게 안겨온다.

비로봉에서 보는 경치는 계절, 일기, 시간에 따라 그 아름다움이 서로 다르다.

여기에서 기본은 조선동해의 해돋이와 저녁노을이 비낀 금강산의 모습을 바라보는것이다.

비로봉일대에서는 산아래에서 볼수 없는 고산식물이 퍼져있는 특이한 경치도 볼수 있는데 구름도 쉬여넘는다는 비로봉꼭대기는 차고 바람이 세기때문에 누운잣나무, 누운향나무, 누운측백나무 등 온통 누운 나무들뿐이며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들쭉나무, 만병초도 있다.

사선교에서 비로봉으로 오르는 사이에 있는 바위줄기는 마치 하늘에 세워놓은 사다리와 같은데 여기에 아침해가 비칠 때면 은빛을 내고 저녁노을이 비끼면 황금빛을 뿌린다고 하여 은사다리, 금사다리라고 부른다.

이 경치와 관련하여 사람들속에서 전해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지난날 권세있고 돈많은 부자들이 기생들을 데리고 금강산구경을 할 때면 산밑에서부터 가마를 타고 은사다리, 금사다리를 거쳐 비로봉으로 오르군 하였다.

그런데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하다보니 가마를 멘 사람들이 얼마쯤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더는 못 올라가겠다고 하면 부자놈들은 처음엔 은가락지를 뽑아주었고 또 주저앉으면 금가락지를 뽑아주면서 비로봉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을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은사다리, 금사다리로 부른다는것이였다.

비로봉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조국땅을 사수한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투쟁이야기가 깃들어있는 351고지와 월비산, 1211고지도 바라보인다.

주체95(2006)년 9월 몸소 금강산에 오르시여 비로봉의 장쾌한 해돋이를 부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세월 착취계급의 독점물로 되였던 금강산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인민의 유원지로 훌륭히 전변되였다고 하시면서 산좋고 물맑은 우리 나라에는 가는 곳마다 만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승지들이 많다고, 찬란한 문화와 유구한 력사를 가진 아름다운 사회주의조국에서 참된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으로 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진정 금강산의 비로봉은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모습과 더불어 위대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길이 전하며 로동당시대 인민의 명승으로 세세년년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바다생물자원보호증식에 좋은 바다목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는것은 수산업발전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바다생물자원을 보호증식시키고 수산물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바다목장건설에 큰 힘을 넣고있다.

바다목장은 초원에서 집짐승을 방목하는것처럼 개방된 바다수역에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자연적인 바다환경에서 물고기를 비롯한 바다동물을 길러내는 수산자원증식장을 말한다.

초기에는 개방된 바다수역에서 바다나물이나 조개 등 이동성이 없거나 적은 일부 바다생물만을 인공적으로 증식시켜 길러냈다.

그후 인공어초조성기술, 바다동물의 방류 및 관리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물고기를 비롯한 바다동물들을 자연적인 바다환경에서 길러내는 방식이 점차적으로 형성되게 되였다.

최근에 바다목장은 개방된 바다수역에 대규모의 인공어초를 조성하는것과 함께 바다동물을 관리할수 있는 설비들을 리용하여 경제적가치가 높은 바다동물들을 계획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길러내는 하나의 생태양어 및 양식체계로 발전하였다.

바다목장을 건설하면 수역에 바다동물이 자라는데 적합한 서식조건이 조성되는것으로 하여 놓아준 물고기들이 잘 증식할뿐아니라 야생물고기들도 모여들게 되여 생물자원이 늘어나며 이로부터 수산물을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다.

세계적으로 지나친 어로에 의하여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집약적인 바다양어 및 양식으로 바다물이 오염되여 수산물의 질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러 나라들에서는 바다목장건설을 어업발전의 기본방향으로 규정하고 바다목장건설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16년현재 세계적으로 30여개의 나라와 지역들에서 바다목장을 건설하였다고 한다.

바다목장건설에서 주목되는 문제는 우선 바다목장위치를 바다생물이 자라는데 유리한 수역에 정하고 어초를 조성하고있는것이다.

또한 바다목장에 음향발생 및 자동먹이공급장치를 설치하고 바다동물을 새끼단계에서 음향유도 및 먹이주기에 적응시켜 놓아줌으로써 바다목장안에서 바다동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생산성을 높이고있는것이다.

그리고 바다목장환경에 대한 감시측정체계를 세워 수역의 수질과 온도, 용존산소량 등 바다생물의 증식에 관계되는 인자들의 변화상태를 제때에 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것이다.

바다목장건설은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투자가 비교적 많이 들지만 바다생물자원을 보호증식시키고 수산물생산을 늘이며 생태환경을 개선하는것으로 하여 수산업발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본사기자

맛있고 영양가높은 감자가루음식 몇가지

감자가루대추설기

음식감으로 감자가루 120g, 대추 50g, 꿀 20g, 소젖 40g, 찹쌀가루 30g, 잣알 5g, 소금 1.5g을 준비한다.

감자가루와 찹쌀가루에 소금, 꿀, 소젖을 두고 고루 쉬운 다음 몽오리가 없게 잘 비벼 성근 채로 친다. 대추는 절반 갈라 씨를 뺀다. 시루에 떡보를 펴고 김이 오를 때 나무잎모양의 틀을 놓고 채로 친 가루를 넣는다. 틀을 따라가면서 씨를 뺀 대추를 놓고 중심에 잣알을 보기 좋게 놓은 다음 찜가마에서 익힌다. 다 익으면 충분히 뜸을 들인 다음 그릇에 담아낸다.

감자가루락화생지짐

음식감으로 감자가루 100g, 밀가루 20g, 소금 1g, 소젖 250g, 락화생 100g, 기름 15g을 준비한다.

락화생을 닦아서 속껍질을 벗기고 분쇄기에 넣어 가루를 낸다. 감자가루에 소젖, 밀가루, 락화생가루, 적당한 량의 물과 소금을 두고 잘 섞어 반죽물을 만든다. 기름을 두른 단 지짐판에서 직경 8㎝, 두께 0.3㎝되게 지진 다음 그릇에 담아낸다.

본사기자

력사유적 부용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문화유적은 나라의 귀중한 문화적재보입니다.》

해주시에 있는 력사유적인 부용당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건설된 루정이다.

련못에 돌기둥을 박고 그우에 세운 독특한 형식의 건물인 부용당은 16세기초에 건설되였다.

부용당은 《공향각》이라고 불리우는 건물과 ㄱ자형으로 이어져있다.

천수백㎡나 되는 련못의 한가운데 수십개의 기둥을 박고 그우에 지어진 부용당은 건물 바깥쪽에만 기둥을 세우고 가운데는 연회같은 것을 할수 있게 통칸으로 되여있다.

기둥우의 두공은 소박한 2익공이고 단청도 너무 요란하지 않게 모루단청을 입혔다.

부용당은 루정으로서의 구조적특징을 잘 살리고있으면서도 주변환경과 긴축을 잘 조화시킨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적이다.

련못우에 두둥실 떠있는것 같은 부용당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왔던지 그것이 점차 유명해져 당시 부용당을 보지 못했으면 해주에 가보았다고 하지 말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밤에 련못의 활짝 핀 꽃우에 떨어지는 비소리가 하도 듣기 좋아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면 여기에 모여왔으며 그것이 어느덧 해서팔경의 하나로 불리워지게 되였다.

부용당의 경치가 해주의 자랑으로, 해서팔경의 하나로 되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가지 시가들과 전설들도 수많이 생겨나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혹심히 파괴되였던 부용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에 의하여 옛 모습그대로 훌륭히 복원되였다.

지난날 봉건통치배들의 유흥터로 리용되였던 부용당은 우리 당의 손길아래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장소로 훌륭히 꾸려져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애국주의교양장소로 되고있다.

김수정

평양에 첫눈이 왔다

첫눈이 왔다. 설경이 펼쳐진 대동강반에 기쁨의 웃음이 넘쳐난다.

만단사연을 속삭이며 내리는 눈송이들을 바라보느라니 가슴벅찼던 뜻깊은 날과 날들이 찌릿한 감회속에 되새겨진다.

송이송이 춤을 추며 내리는 첫눈을 맞으며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얼굴마다에도 이해의 행복넘친 나날들에 대한 추억과 함께 더 좋을 래일에 대한 끝없는 환희가 넘쳐흐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광림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우시군 가하리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에 넘쳐 일해나가고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이곳 일군들은 대중체육활동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사업에 누구나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리에서는 국가적명절들과 기념일들, 체육의 날 등에 국방체육을 위주로 하면서 바줄당기기, 롱구, 배구, 집단달리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경기들을 진행하였다.

온 한해 활발히 진행된 대중체육활동에서는 2중3대혁명붉은기 청년작업반과 3대혁명붉은기 제2작업반이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대중체육활동에서는 일군들 부리가 앞장에 서군 하였다.

체육경기때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어울려 승부를 겨루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대중의 체육열의를 북돋아주고 경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였으며 집단의 단결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대중체육활동을 통하여 농장원들의 체력은 튼튼해지고 집단의 단합이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당면한 혁명과업수행에서도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로농통신원 최창률

생당쑥의 약효와 그 리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려약은 우리 인민들이 오랜 세월 내려오면서 써온 좋은 약이므로 고려약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인민들은 먼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 풍부한 약재들을 가지고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많이 만들어 질병치료에 널리 리용하였다.

그러한 고려약재들가운데는 생당쑥도 있다.

생당쑥은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며 뿌리는 굵다. 줄기는 50-100㎝높이로 곧추 자란다. 잎은 어기어 나며 일뚜기가 있다. 8-9월경 노란 꽃이 머리모양꽃차례를 이루고 핀다.

우리 나라 각지에서 자라는 생당쑥은 열을 내리우고 오줌이 잘 나가게 하며 황달, 간염, 담낭염 등의 치료에 쓴다. 특히 생당쑥은 예로부터 황달치료에 널리 써온 고려약재이다.

보건부문의 과학자들이 전통적인 약재인 생당쑥을 리용하여 간염치료에 좋은 고려약을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벌려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그가운데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의 과학자들이 생당쑥과 황금의 유효성분인 바이칼린을 리용하여 만든 생당쑥황금간염주사약개발성과도 있다.

생당쑥황금간염주사약에 대한 림상검토를 진행한 결과 만성간염, 간경변환자들의 높아진 효소값을 빨리 정상으로 낮출수 있다는것이 확증되였다.

이 약물을 적용하면 간장질병환자에 대한 치료효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 주사약은 입맛없기, 설사, 황달, 간붓기, 간부위아픔, 메얼기 등과 같은 증상들을 현저히 개선시킬수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펼쳐가시는 절세의 위인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고매한 풍모에 국제사회가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나라를 여러차례 방문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결정체들을 직접 목격한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오늘 세계의 진보적인류가 조선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를 높여나가는것은 김정은최고령도자동지께서 사회주의조선을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철저히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나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고계시기때문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조선에서는 지금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새로운 문명이 세계적인 높이에서 창조되고있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고 조선인민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만복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김정은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이의 령도의 손길이 가장 뜨겁게 어린 부문은 건설부문이라고 할수 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라고 가르치시였다고 한다.

이러한 정의는 오직 숭고한 인민관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쳐가시는 그이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것이다.

조선인민에게 사회주의만복, 가장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동지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 조선에서는 김정은시대의 사회주의문명개화기가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시기 위해 미나면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걸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흠모심은 세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에 실린 글들에도 어려있다.

방글라데슈신문 《데일리 포크》는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현지지도는 인민복무의 현지지도이다.

그이께 있어서 현지지도는 단지 현실료해만이 아니라 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들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그이의 끊임없는 현지지도에 의하여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이 날로 향상되고있다. 때문에 조선인민은 최고령도자의 현지지도를 가리켜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 〈인민행현지지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란의 일나통신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이시야말로 숭고한 인덕과 인민관을 지니신 애민형의 정치가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며 진정한 애민정치를 펴나가신다. 조선인민은 그이의 정치에 대해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라고 표현한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전풍을 하나 지어도,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그들이 편리해하는가를 물으신다. 그이께서는 활동의 대부분을 집무실에서가 아니라 나라의 방방곡곡 인민들을 찾는것으로 보내시며 기회가 있을때마다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것을 강조하신다. 조선인민은 그이를 국가지도자에 앞서 어버이로, 스승으로 따르며 흠모하고있다.》

로씨야의 인터네트잡지 《렘쉬쉬》는 《인민의 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국의 한 정치평론가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에서 조선은 전형적인 인민지시책이 실시되는 나라라고 서술하였다.

비료적 조선에 대해 옳게 두시한 글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가 평가해온 강국들은 인구수나 령토의 크기, 자원이나 재부, 지정학적위치의 유리성으로 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정치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나라들이였다.

그러나 조선은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하여 건설된 완전히 새로운 형의 강국이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인민사랑의 정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해 굳건히 계승되고있다.

각국 언론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정치활동의 순간순간을 주시하고있으며 세계는 인민최우선, 인민절대시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그이의 모습에 매혹되였다.》

뽈스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람구를 위한 국제친선발기는 인터네트홈페지에서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시기 위해 삼복철과 대소한의 추운 겨울, 길은 밤과 새벽에도 지칠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이신다. 인민에 대한 그이의 사랑과 열정은 훌륭한 열매를 맺고있다. 조선인민은 뜨겁고도 위대한 사랑과 정으로 운명도 미래도 다 보살펴주시는 최고령도자의 사랑속에 살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하기에 그들은 령도자를 충정다해 받들어모시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날 그날을 앞당겨올 굳은 결심에 넘쳐있다고 격찬하였다.

각국의 언론들이 칭송하듯이 이 땅우에 세상에 부러운것 없는 천하제일락원을 일떠세우실 숭고한 뜻을 안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길에서 겪는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걸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자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천만리길을 이어가시는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세계는 숭고한 인민관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끝없는 사랑과 헌신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거룩한 애국헌신에 의해 우리 조국이 세상에 부럼없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빛을 뿌릴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수진

「자주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민족공동의 대강

주체61(1972)년 5월 3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친히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순간 남측대표는 백두의 천출위인으로 명성높으신 그이의 위풍당당한 모습앞에서 당황하여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만면에 태양처럼 환하신 웃음을 지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분렬로 말미암아 오래동안 갈라져있던 같은 동포끼리 이렇게 만나고보니 매우 반갑다고 하시였다.

남측대표는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위대한 수령님께 이번에 평양에 오게 된것을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리였다.

넓은 도량과 포옹력으로 그를 대해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면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있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하나하나 설명해주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겨레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남측대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통일의 큰 기둥으로 삼을것을 맹세한다고 말씀드리였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자주사상과 애국애족의 통일의지, 탁월한 예지의 결정체이다.

불멸의 대단결기치

주체83(1994)년 4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조국을 방문한 제도이 쉴란드료포인사와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조선사람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보람있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작성하여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발표하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자신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작성하여 발표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킨 민족통일전선강령이며 조국통일대강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 이튿날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재미교포를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자신께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작성하여 발표하신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하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한 경험에 기초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애국력량을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묶어세우기 위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자자구구 새겨안은 교포인사들은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통일전선실현에 적극 떨쳐나설 의지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기자

생존권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진입

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민주로총이 21일 서울시와 인천시, 제주도 등 14개 지역에서 생존권쟁취를 위한 대규모적인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민주로총 지도부성원들이 적폐청산, 로조운동권쟁취, 사회대개혁실현을 위한 시국릉성에 돌입한데 이어 이날 로조적인 총파업에 진입하였다.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국회》건물앞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집회들에서 참가자들은 로동관련법의 개악으로 로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있다고 말하였다.

로동과 로조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면서 로동관련법개악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 *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민주로총산하 서울대학교병원로조가 20일 생존권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병원에서 출정식을 가진 로조성원들은 병원측이 로동시간단축을 비롯한 로동자들의 7가지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벌릴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대법원의 부당한 인사조치의 내막 폭로

19일 남조선 《KBS》, 《CBS》방송들에 의하면 이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 등에 의해 사법부내에서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것이 폭로되였다.

이번에 공개된 인사문건은 2015년 1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하고 대법원 원장 량승태와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의 서명이 있는것으로서 거기에는 당시 부장판사였던 송승용이 대법관구성과 관련하여 자기의 견해를 발표하였다는 리유로 지방법원에 내려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다른 부장판사도 의장을 선출하는 문제에 관하여 관례를 깨고 투표의 방법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물의판사》로 몰아 인사조치하도록 하였다.

실지로 문건이 작성된 후 한달도 안되여 송승용은 수원에서 창원지방법원산하로 내려갔다고 한다.

사법통락사건이 폭로된 이후 량승태는 줄곧 이 사건이 자기와는 무관하며 《판사들에게 불리익을 준적이 없다.》고 강변하여왔다.

그러나 이번에 량승태가 자기에 대하여 비판적인 법관들을 인사조치하도록 한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그러한 주장이 거짓이라는것이 드러났다고 한다.

방송들은 이 사실을 전하면서 앞으로 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전하였다.

성노예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것을 요구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가 21일 집회를 가지고 일본정부는 성노예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화해, 치유재단》의 해산발표는 일본과의 성노예문제《합의》의 무효화선언이라고 하면서 이제 남은것은 일본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하는것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정부는 성노예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였다는 망언을 당장 중단하라고 단체는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비난을 배격

중국상무부 보도대변인이 22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근거한 비난을 배격하였다.

미통상대표부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적소유권 등 여러 분야에 대해 비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자기 나라를 무근거하게 헐뜯은 보고서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중국은 여러차례에 걸쳐 미국의 해당 무역조치들이 저들의 국내법에 근거하여 취하는 일방주의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인 수법이며 세계무역기구의 다무적인 규칙을 무시하고 과괴하는 행위이라는데 대해 밝혔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이 쌍방사이의 경제무역관계를 과괴하는 언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씨야의 로스또브주에서 비행훈련 진행

로씨야의 로스또브주에서 최근 적의 공격을 격퇴하는 비행훈련이 진행되였다.

훈련에는 약 1 000명의 비행사 및 기술보장성원들과 기동전술항공대의 비행기들을 비롯한 300여대의 군사기술기재들이 동원되였다.

그 과정에 군인들은 폭격을 받고있는 기지비행장을 신속히 리탈하여 공중에서 적의 항공대를 소멸하기 위한 능력과 《Иа-78》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를 진행하는 방법을 련마하였다.

21일 남부군관구가 이에 대해 밝혔다.

이스라엘의 령토팽창책동을 단죄

팔레스티나외무성이 22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령토팽창책동을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최고재판소가 부당한 구실을 내걸어 동부꾸드스에서 약 700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를 비법적인 관점로 락인단죄하였다.

이스라엘의 결정은 팔레스티나인들이 항시적으로 유태복고주의자들의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들 협조

케니아와 모잠비끄가 21일 두 나라사이에 무사증제도를 도입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은 모잠비끄대통령의 케니아방문과정에 조인되였다.

이에 앞서 20일 인디아와 월남이 제신분야와 자와하할랄 네루종합대학과 호지명국가정치행정학원사이의 쌍무협조에 관한 량해각서들과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협정들을 체택하였다.

* *

로므니아와 몰도바가 22일 관광업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할데 관한 합의서에 조인하였다.

이에 앞서 21일 칠레와 브라질은 두 나라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새 철도 개통

이란에서 새로 건설한 철도가 최근 개통되였다.

이 나라 대통령의 참가밑에 개통식이 진행되였다.

신문 《파이낸셜 트리뷴》은 이로써 동부아제르바이잔주와 서부아제르바이잔주에 부설된 철도가 국가철도망에 련결되였으며 해마다 100만명의 려객과 150만t의 화물을 수송할수 있게 되였다고 전하였다.

광업발전계획

뚜니지정부가 최근 광업에 의한 수입을 현재보다 10% 더 늘일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실현을 위해 다음해에 예산의 많은 몫이 광업부문을 발전시키는데 돌려지게 된다.

살인범죄가 판을 치는 일본사회

최근 일본의 《도꾜신붕》과 《마이니찌신붕》을 비롯한 신문들은 국내에서 살인범죄가 계속 발생하고있는데 대한 소식을 앞을 다투어 전하고있다.

지난 9일 이시가와현의 가나자와시에서 손자가 할아버지를 목졸라 죽인 사실이 공개되였으며 이에 앞서 5일에는 시마네현에서 손자가 할머니를 살해하는 범죄가 발생하여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이밖에도 사이다마현에서 한 늙은이가 자기 안해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으며 시가현에서 25살 난 청년이 아버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를 무참히 죽인것, 미야기현에서 손녀가 병원에 입원해있는 할아버지를 파일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들이 련이어 전해졌다.

놀라운것은 살인범죄를 감행한자들에게서 죄책감이란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파일칼로 할아버지를 살해한 손녀는 자기 할아버지를 죽일 작정으로 찔렀다고 뇌까렸으며 가나자와시에서 할아버지를 죽인 손자는 살인행위를 한 후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오락장에 놀았다고 한다.

일가친척끼리도 서로 죽일 내기를 하는 일본사회에서 잠재한 살인범죄들이 발생하는것은 일상적인 일로 되고 있다.

오사까부에 있는 한 려관방에서 목이 잘린 녀성의 머리가 발견되였으며 도꾜에서는 27살 난 범죄자가 자기 집에서 여러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각을 떠서 버린 사건들이 드러났다.

사가현에서는 불량배들이 두명의 남녀를 구뎅이에 처넣어 생매장하였으며 후꾸시마현에서는 범죄자들이 사람을 살해하고 그의 두손목을 자른 후 시체를 술속에 버린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에서 발생하고있는 살인범죄들은 인간중오사상이 만연된 써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를 보여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상식

파기될 운명에 처한 일부 군축조약들

랭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로미사이의 격화되는 모순과 대립으로 세계적인 군축조약들이 파기될 운명에 처하였다. 그 조약들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유럽상용무력축감조약

1990년에 조인된 조약이다. 2015년 3월 로씨야는 나토성원국들이 유럽상용무력축감조약을 리행하지 않는것과 관련하여 조약에 관한 협상그루빠사업에 참가하는것을 공식적으로 중지하였다. 이것은 조약에서의 완전한 탈퇴를 의미한다.

로씨야의 탈퇴과정은 2007년부터 시작되였다. 로미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고있는 오늘 조약의 시행은 정지된 상태이다.

《개방된 하늘》조약

조약은 1992년 3월 유럽안전협조기구 헬싱키수뇌자회담에서 조인되였다. 이것은 조약당사국들의 군비나 군대배치상황 등을 호상 점검할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조약이다.

2014년 4월 미국과 로씨야는 각기 상대국비행기들의 감시비행을 금지시켰다.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폐조약

1987년 12월 7일 미국대통령 레간과 쏘련의 고르바쵸브에 의해 조인되였다. 조약에는 두 나라가 사거리가 500㎞로부터 5 500㎞에 이르는 지상기지순항미싸일 및 탄도미싸일을 더는 보유하거나 생산 및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제되여있다.

지난 10월말 미행정부가 때가 되면 조약에서의 탈퇴에 대해 정식으로 통보할것이라고 밝혔다.

조약이 파기의 도마우에 오르게 되자 유럽나라들을 비롯한 미국의 동반자들속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

1993년 빠리에서 체결되였다. 이 협약은 화학무기를 철폐하고 독성물질생산을 완전히 금지시킬것을 예견한것이다. 1997년 4월 29일 구체적인 조약리행기한이 합의되였다.

현재 화학무기철폐사업은 종결되지 못하였다. 아직 다량의 화학무기를 가지고있는 미국에 대한 로씨야의 비난과 수리아에서의 화학무기공격설을 둘러싸고 격화되는 두 나라사이의 마찰은 협약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고있다.

군축조약들의 현 상태는 국제적안전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증대되는 우려, 지구온난화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1)

조선반도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 추위가 닥쳐오고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올해 여름에 겪은 최악의 무더위를 잊지 않고있다. 《찬측사상 드문 날씨》, 《사상 최악의 수준》이라는 표현들이 일기예보를 통해 매일과 같이 사람들의 고막을 때리군 하였다.

이것은 지구온난화가 예상외의 속도로 촉진되고있다는것을 현실로 확증해주었다.

세상사람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해 몹시 우려하고있다.

앞으로 이러한 이상기후가 어떤 결과를 빚어내겠는가.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그 후과는 엄중하다고 평하고있다.

명백한것은 오늘날 이 행성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그를 막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는것이다.

인류를 괴롭힌 폭염

올해에 지속된 폭염은 인간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석탄리용을 제한하여왔다. 하지만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7월에만도 석탄수입량을 전해같은 시기에 비해 49%이상 늘여야 하였다.

스웨리예와 핀란드에서는 일부 원자력발전소들이 폭염의 영향을 받아 가동을 일시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영국과 네데를란드의 일부 도로들은 아스팔트가 녹아 페쇄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웰지끄에서 35만~40만그루의 명질장식용나무의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할수 없게 되였다.

파키스탄에서 열파가 휩쓸어 인명피해가 났다. 기온이 44℃까지 올라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열사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일본에서도 찬측사상 최고온도가 기록되였는데 열사병에 의한 사망자수와 구급환자수 또한 최고였다고 한다.

인디아에서는 심한 가물로 피해를 입고 절망에 빠진 농민들속에서 자살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라뜨비아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가물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적지 않다. 이라크에서도 가물로 인한 후과가 심각하였는데 정부와 국제기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가 주민들의 불만과 민궁을 리용하여 세력을 확대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폭염은 유독성마름류의 성장을 촉진시켰고 이것은 수원지들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에서 주민용생활용수로 리용되는 강이나 호수의 90%이상이 심히 오염되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였다. 밝혀진데 의하면 유독성마름류의 독소는 거르기장치로 제거할수 없다. 소독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멸되면서 독소를 대량방출하기때문에 오래동안 먹는물을 공급할수 없게 된다고 한다.

위협을 받는 자연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들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것이 산불과 들불에 의한 피해이다.

올해에만 해도 로씨야와 스웨리예, 라뜨비아, 그리스, 포르뚜갈에서 산불로 수많은 산림과 살림집들이 타버렸으며 사상자들까지 발생하였다.

미국에서는 파괴적인 들불이 일어나 초원들이 못쓰게 되였다. 대규모적인 산불도 계속 일어났는데 어느 한 주에서 산불이 확대되였을 때 비가 내렸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비물은 땅에 닿기도 전에 대부분 증발되였다고 한다.

얼마전 어느 한 연구집단이 밝힌데 의하면 열대강우림이 기록적인 속도로 파괴되였다. 지난 17년동안 열대강우림은 계속 감소되였다.

아마조나스강류역에서는 급격한 속도로 수림면적이 줄어들었는데 현재 이곳 열대강우림의 17%가 파괴되였다고 한다. 원인은 채벌과 기후변화, 화재 등으로 분석되고있다. 어느 한 잡지는 산림이 면적상 20%까지 파괴되면 수복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면서 경종을 울리였다.

유독성마름류가 대량번식하여 바다생태계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발트해에서 바다물온도의 상승 등에 의해 독성이 있는 박테리아가 대량발생하였다.

메히꼬만에서는 유독성마름류때문에 바다거부기를 비롯한 해양생물들이 수많이 죽었다.

세계최대의 산호무지지대가 위기에 처했다.

자연의 방파제로 되고있는 산호무지가 열파로 인하여 30%나 사라졌다고 한다. 산호무지에서는 무수한 생물들이 서식하고있으며 그와 먹이사슬을 이룬 물고기들이 10억명정도의 사람들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고있다. 만약 산호무지가 사라지면 이 모든것이 파괴되게 된다. 산호무지를 지킬수 있는 희망은 있다. 이산화탄소방출량을 대폭 줄이는것이 기본열쇠로 될것이라고 한다.

극지역의 얼음이 지구온난화에 의해 점점 빠른 속도로 녹아버리고있다.

지구온난화를 억제할수 있는 마지막얼음수역으로 불리우는 그린랜드북부연안의 얼음층도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위성사진에서 확인된데 의하면 올해 2월과 8월초 얼음이 녹아 떨어져나가는것이 발견되였다.

지금 극지역의 바다얼음은 1981년-2010년의 평균면적과 비교할 때 88만㎢나 작아졌다고 한다.

본사기자 손소연

과학기술소식

염도차를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수 있는 새 재료 개발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염도차를 리용하여 전기를 효과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새로운 막재료 즉 3차원다공막을 개발하였다.

새로 개발된 다공막의 에네르기전환효률은 매우 높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어구에서 민물과 바다물의 염도는 서로 다르다. 이 염도차에 의하여 바다물은 삼투압과 희석열, 농도전위차 등 에네르기를 가진다. 이것은 깨끗한 에네르기자원이다.

염도차에 의한 전기생산방식은 이미전에 어려 나라의 과학자들이 착상하여 내놓았다.

그러나 이전의 방식들은 전기생산효률이 낮은 반면에 원가는 높아 대규모적으로 도입하기가 곤난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다공막을 리용하면 발전출력을 ㎡당 2.66W 혹은 그보다 더 높일수 있다고 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어구에 다공막을 설치하면 이온농도차에 의해 염기의 방향성운동이 진행된다. 이때 다공막은 일종의 극을 띤 대전이온은 통과시키고 극이 반대인 대전이온은 려과함으로써 전류를 산생시킨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막재료를 주요부분품으로 한 극소형발전기를 만들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서 이 발전기는 한대의 전자설비에 에네르기를 충분히 공급하였으며 바다물과 민물의 염도조건하에서 120시간 동작하면서도 전류세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 관계자는 3차원다공막의 안정성과 대규모적인 생산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것은 상업적응용잠재력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본사기자

교통사고방지노력

탄자니아정부가 최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19일 이 나라 경찰당국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이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받지 못한 운전사들이 많기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전기술이 낮은 사람들을 양성소에 보내여 교육시키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한편 르완다정부가 18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교통법을 새로 제정하여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엄벌을 가할것이라고 한다.

르완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교통사고로 약 440명의 사망자와 660여명의 부상자가 났다.

【조선중앙통신】

ㄱ-181187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